

석사학위논문

당(唐) 후기 산둥(山東) 지역의
정세와 장보고 등장 배경

2023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동 양 사 전 공

호 영 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근칠

당(唐) 후기 산둥(山東) 지역의 정세와 장보고 등장 배경

唐后期山东地区形势张保皋登场背景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동 양 사 전 공

호 영 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근칠

당(唐) 후기 산둥(山東) 지역의 정세와 장보고 등장 배경

唐后期山东地区形势和张保皋登场的背景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동 양 사 전 공

호 영 흠

호영흠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認准함

202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이 재 석 (인)

심 사 위 원 윤 성 호 (인)

심 사 위 원 박 근 칠 (인)

국 문 초 록

당(唐) 후기 산둥(山東) 지역의 정세와 장보고 등장 배경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동 양 사 전 공
호 영 흠

장보고를 언급할 때 가장 주목받는 것은 그가 주도한 당·나·일 3국 간의 해상무역 활동이다. 장보고의 등장 이후 3국 간의 무역 활동은 원래 국가가 주도 하던 조공(책봉) 무역에서 ‘합법적’ 민간무역으로 전환되었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어떻게 3국 간의 해상무역을 전개할 수 있었을까? 그의 무역 활동을 시작된 계기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선 당시 장보고의 주요 활동지였던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한 당조의 상황이나 정세에 대해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당조는 안사의 난을 겪었던 후에 정치적·군사적·경제적인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지방에 대한 지배력도 약해지는 상황이었다. 반면 지방 번진 절도사는 번진 내의 행정·재정·군사 삼권일치(三權一致)를 이루었고, 점차 당조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일부 번진들은 연합하여 당조 중앙과 대항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들은 이른바 ‘할거 번진’으로, 그 중 대표적인 번진은 산둥 지방에 위치하는 치청(淄靑)번진이며, 당시 세력이 가장 강한 번진이었다.

그러나 당조 중앙의 통치에 순응하며 중앙과 맞서지 않는 변진도 있었다. 이처럼 순응한 변진은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당조 재정의 주요 수입지인 동남지방의 변진으로, 당조 중앙은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이 지역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중원지방의 변진은 동남지역의 조량(漕糧)을 빠르게 장안으로 운송하고, 또 반란을 견제하는 역할로 주목되었다. 당조는 동남지방의 변진과 중원지방의 변진을 장악함으로써 중앙기구를 정상화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안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즉 당조 변방의 안전 문제였다. 당조는 변방 이민족의 빈번한 침입 때문에 이곳에 많은 병력을 배치하여 변진을 설치하였고 변방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변방에서 이렇게 많은 병력을 보유하는 것은 장안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었다. 이 때문에 변방의 형세는 항상 당조 중앙에게 중시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로 중앙의 지배력이 약해졌던 배경 하에 당조는 우선 동남 변진을 이용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그 외 여력(餘力)으로 변방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장안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때문에 동북 지역에 있는 할거 변진에 대해서는 해결할 여력이 없었다. 당조는 동북 할거변진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더 이상 중앙 정부에 저항하지 않도록 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변진과의 불필요한 전쟁은 피하고, 중앙의 지배력이 더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당조 중앙의 타협과 용납하는 태도로 인해 당시 산둥지역을 지배하였던 이정기 가문은 산둥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발해, 신라와 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정기 가문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당조 중앙과 계속 할거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씨 가문의 좋은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하였고, 819년에 당조에 소멸되었다. 이후 치청변진은 중앙으로 귀순하여 더 이상 지방정부 명의로 국제 무역을 전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당조의 중심재원지인 강회(江淮)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당조는 상대적으로 치청변진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산둥 경내(境內)에서는 이미 ‘관행’이 된 해외 무역 시장에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하였다. 이때 당 목종(穆宗)의 병력 감소 정책으로 무녕군(武寧軍)을 떠난 장보고는 치청변진 지방정부의 은밀한 지원 아래 산둥 경내의 신라

인을 연합하여 등주(登州)의 적산법화원을 기지로 삼아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당·나·일 3국 간의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장보고는 당조 중앙의 재원지인 동남지방에 대한 중시, 당조 변경 정세의 견제, 당조 중앙이 산둥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배경 하에서 치청진 지방정부와 결합하여 당·나·일 3국 간의 해상무역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장보고(張保臯),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 번진체제(藩鎮體制), 이정기(李正己), 재당신라인(在唐新羅人)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당 후기 변진(藩鎭) 체제와 당조의 대응	4
제 1 절 동남변진을 통한 재원의 확보	4
제 2 절 하삭(河朔)변진의 할거양상과 당조의 대응	12
제 3 장 산동의 지정학적 특질과 이정기(李正己) 가문의 경제적 확장	21
제 4 장 산동 지역 신라인의 활동과 장보고의 등장	30
제 5 장 결론	42
참 고 문 헌	44
中 文 提 要	48

표 목 차

[표 1] 당 후기 번진 유형 분류	5
---------------------------	---

그림 목차

[그림 1] 당 후기 변진 및 상공 지역 구획	5
[그림 2] 수(隋), 당(唐)대 대운하 노선도	9
[그림 3] 산둥반도와 신라 간의 해로 노선도	22
[그림 4] 엔닌 일행의 초주와 양주 간의 왕래 노선도	33

제 1 장 서론

장보고는 신라의 해상활동가로서 당·나·일 3국 간의 해상 무역 활동을 주도한 인물로 주목되었다. 그는 신라의 서해안에 청해진(淸海鎭)을 세워 당시 해상에 출몰했던 해적 세력을 소멸시켜 많은 신라인들이 고향을 등지고 유산(流散)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신라 영웅으로도 평가되었다. 근년 장보고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장보고가 주도한 무역 활동은 공인된 최초의 국제무역 활동으로 3국 학계로부터 대개 인정받았고, 3국의 사료에도 이런 측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보고가 남긴 공헌과 업적에 대한 연구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나아가 그를 ‘해상왕’이라고 평가하였다.¹⁾

그런데 이러한 장보고의 해상활동이나 신라 정치사와 관련된 평가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²⁾ 장보고의 초기 활동, 즉 장보고가 당·신라 사이에 해상세력을 규합하여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 특히 당시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응할 만큼의 분석이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보고 상단의 주요 활동지였던 당조 경내의 사정이나 당조의 이에 대한 정책 등에 주목하여 장보고의 무역 활동을 더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당조의 정치, 경제, 군사적 정세는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당조는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장보고는 어떤 연유에서 산둥지역을 무역 활동의 주요 거점으로 택했을까?

주지하듯이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당대 후기의 산둥지역을 거점으로 전개되었

1) 장보고가 ‘해상왕’이라는 평가는 E.O.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95, p.287를 참고하였다.

2) 이와 관련된 논문은 이기동, 「9~10세기에 있어서 황해를 무대(舞臺)로 한 한(韓)·중(中)·일(日) 삼국의 해상활동」, 『진단학보』 71, 1991; 권덕영,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路에 對한 考察」, 『역사학보』 149, 1996; 김문경, 「在唐新羅人の 集落과 그 構造」, 『당고구려유민과 신라교민』, 서울: 일신사, 1986; 박한설, 「羅末麗初의 西海岸交涉史研究」, 『국사관논총』 7, 1989 등이 주목된다. 또한 장보고와 관련된 연구 성과의 정리로는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張保皋關係研究論文選集(韓國篇)』, 서울: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등을 참고할 만 하다.

다. 따라서 당 후기 산동지역에 대한 당조의 입장이나 조치는 안사의 난 이후 당조의 지방할거세력인 변진에 대한 대책과 밀접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조의 변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산동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전제하고, 산동반도에서 발해를 거쳐 한반도와 연결되는 지정학적 특징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선 Ⅱ장에서는 『신당서(新唐書)』, 『구당서(舊唐書)』 등 사료를 통해 안사(安史)의 난 이후 당조의 경내(境內) 여러 지역에 대한 통치의 주안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강회(江淮)지역 등 주로 동남(東南)지역이 당조의 지역 지배에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반면, 서북 변경 지역은 이(異)민족의 침략문제가 당조의 주요 관심사였다. 때문에 당조는 지역 지배에 있어, 그들의 정치·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적 의미를 함께 고려했을 것이고, 이러한 당조의 입장은 당시 당조의 경내 여러 지역에 대한 통치 양상 등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조의 입장을 전제하여 Ⅲ장에서는 당조와 할거 형태로 존재했던 치청(淄靑)변진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당조는 산동지역의 이정기와 그 가문이 이끄는 치청변진에 대해서 동남지역이나 서북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통치정책을 채택하였는지에 주목해 보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정기 가문의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와의 무역 왕래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산동지역과 나아가 당조의 경내에서 전개된 신라인들의 활동 내용과 노선을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³⁾ 이러한 당 후기 상황을 전제하여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장보고가 해상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배경을 파악해 보겠다. 특히 이들의 활동 내용과 노선, 그리고 엔닌이 산동 등주(登州)의 적산법화원(赤山法華

3)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일본승 엔닌이 당 문종(文宗) 개성(開成) 3년(838) 6월 13일부터 일본 하카타(博多)에서 출발하여 도당(渡唐)하고, 당 선종(宣宗) 대종(大中) 원년(848) 12월 14일 일본으로 되돌아왔을 때까지의 총 9년 7개월 간의 여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엔닌의 일기에는 당시 당·나·일 3국 간의 교통로, 재당(在唐) 신라인의 활동, 불교 행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박근칠, 「唐後期 江淮運河와 新羅人의 活動」, 『漢城史學』 19, 2004; 강봉룡, 「신라 말~고려시대 서남해지역의 한·중 해상교통로와 거점포구」, 『한국사학보』 23, 2006; 최재영,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社會 -唐朝의 외래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35, 2004; 조범환, 「9세기 赤山法華院의 佛教儀禮」, 『한국고대사탐구』 4, 2010 등이 주목된다.

院)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보고가 당·나·일 3국의 해상 무역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당 후기 당조의 번진 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산동 지역 경내의 신라인들의 구체적인 실상 등을 검토하여 본 논문은 장보고의 등장 배경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보고가 주도하였던 무역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리라 기대한다.

제 2 장 당 후기 변진 체제와 당의 대응

제 1 절 동남변진을 통한 재원의 확보

장보고가 어떻게 또는 왜 무역 활동을 시작했는지 분석하려면 우선 당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장보고가 등장했던 시기는 당대에도 ‘특별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바로 안사(安史)의 난 후에 해당한다. 당시 당조의 경내에서는 변진이 급증했고, 각 변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립하였다. 변진 절도사는 당조 중앙의 지시를 듣지 않고 변진 내의 행정·군사·재정권을 장악하였고, 지방 권력이 강화되면서 중앙 권력이 약화되는 정세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조는 중앙 정부가 지방(즉 당시 각 지역의 변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에 따라 당조는 각 변진의 지리적 위치 또는 각 변진의 당조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각 변진에게 각기 다른 통치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당조의 통치정책과 변진의 지역적 상황을 기준으로, 당 후기 변진의 양태는 대략 하삭 할거형(割據型), 중원(中原) 방어형[防遏型], 변경(邊疆) 방어형[御邊型], 동남 재원형(財源型) 등의 4가지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⁴⁾ 이 4가지 유형에 대한 통치정책을 통해 당조 중앙의 지방 변진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적인 입장과 당 후기 당조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4가지 유형의 변진 중 하삭 할거형 변진(이하 하삭 변진)만이 중앙에 대하여 할거 상태였고, 다른 3가지 유형의 변진은 대부분 중앙의 통치에 순종하였다. 하삭 변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의 변진은 당조가 중앙 통치권을 유지하는 데에 그 역할과 기능이 달랐다. 그중에 당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4)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張國剛, 『唐代藩鎮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를 들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大澤正昭의 分立志向型, 權利志向型, 統一權利志向型에 대한 분석(大澤正昭, 「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德宗·憲宗期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32-2, 1973), 王援朝의 長期割據型, 一度割據型, 京東防內型, 西北防邊型, 東南財源型 등의 구분(王援朝, 「唐代藩鎮分類芻議」, 『唐史論叢』 5, 西安: 三秦出版社, 1990) 등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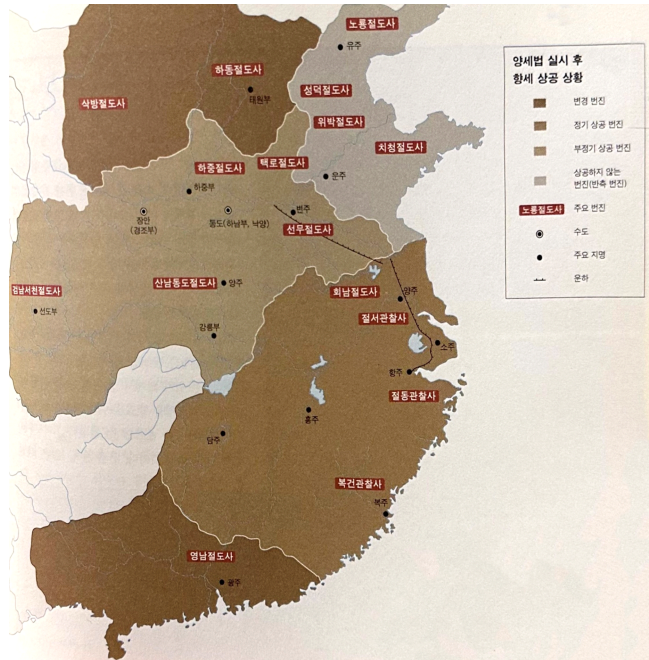
재원지인 동남번진에 대한 통치였다.

구분	지역	
하삭할거형	위박(魏博), 성덕(成德), 노룡(盧龍), 역정(易定: 의무), 횡해(橫海: 창경), 회서(淮西), 치청(淄靑: 평로)	
중원방어형	선무(宣武), 충무(忠寧), 무녕(武寧), 하양(河陽), 의성(義成), 소의(昭義), 하동(河東), 섬궤(陝虢)	
변경방어형	서북	봉상(鳳翔), 빈녕(邠寧), 부방(鄜坊), 경원(涇原), 진무(振武), 삭방(朔方), 하수(夏綏), 풍주(豐州)
	서남	산남서(山南西), 김남서천(劍南西川), 김남동천(劍南東川), 검주(黔中), 계관(桂管), 용관(容管), 옹관(邕管), 안남(安南), 영남(嶺南)
동남재원형	절동(浙東), 절서(浙西), 선흠(宣歙), 회남(淮南), 강서(江西), 악악(鄂岳), 복건(福建), 호남(湖南), 형남(荊南)	

[표 1] 당 후기 번진 유형 분류⁵⁾



5) 張國剛, 『唐代藩鎮研究』, pp.44~45.



[그림 1] 당 후기 변진 및 상공 지역 구획⁶⁾

경제적 측면에서 동남지역은 당 후기 당조의 재원지역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동한(東漢) 말기부터 중원 지역에 빈번한 전란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이를 피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하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남쪽 지역인 강남[江淮] 지역으로 대량의 노동력과 선진 농업 기술을 가져다주었다. 이후 위진 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도 강남지역에는 전란이 적었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안사의 난 이전 동남지역 특히 강회 지역은 당의 중요한 재원지가 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당의 군사 장비 및 국가의 경비는 모두 강회에 의존했다고 지적되었다.⁷⁾ 동남 변진에서 징수한 세금은 당 중앙의 통치를 유지하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당조는 동남지역에 대한 세금 확보를 위해 여타 유형의 변진과는 전혀 다른 통치전략을 실행하였다. 당조는 군사적으로 다른 변진에게는 군대를 보유하는 권리를 허용한 반면 동남변진의 병력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여 중앙에 대하여 반란할 수 있는 군사력을 단절시켰다. 원화(元和)

6) 박한제 외 4인, 『아틀라스 중국사』, 파주: 사계절출판사, 2015, pp.87~89.

7) 『文苑英華』(北京: 中華書局, 1966) 卷422, 元和十四年七月二十三日上尊號敕, p.2139, “兩河宿兵, 戶賦不入. 軍國費用, 取資江淮.”

시기(806~820)에 당조 중앙은 동남 지역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서, 관우(關右) 제진(諸鎭)이나, 하남, 하북과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군사를 많이 감축시켰다.⁸⁾ 따라서 동남변진은 일반적으로 병력이 약했고 오정변(吳廷變)의 말대로 “병(並), 목(沐) 등 대진(大鎭)은 모두 10만 명의 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홍(洪), 복(福), 담(潭), 월(越)은 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⁹⁾ 반란이 일어나도 동남변진은 중원 변진의 군사적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해야 했다. 당 후기에 동남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반란인 유전(劉展)의 난, 원조(袁晁)의 봉기 등에는 모두 중원 변진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반란을 해결하였다.¹⁰⁾ 한편 당조는 동남변진의 병력 제한을 통하여 군사비도 크게 줄였고 병사수를 억제하여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으며, 반대로 중앙으로 상공(上供)하는 세금을 늘릴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당조는 동남 변진의 절도사를 통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동남 변진의 절도사 대부분을 재상(宰相)이 맡도록 하고 평균 임기도 3년을 넘지 않게 하였다. 건부(乾符) 원년(874)까지 절동(浙東) 변수(藩帥)의 평균 임기는 2.8년이었고, 절서(浙西) 2.9년, 선흠(宣歙) 2.8년, 복건(福建) 2.6년, 강서(江西) 2.3년, 형남(荊南) 2.8년, 호남(湖南) 2년이었다.¹¹⁾ 이처럼 짧은 임기는 변수가 변진에서 권력을 키우는 데 제한이 되었고, 당조는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동남 변진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경제적으로 동남지역은 수로가 발달하여 수많은 수로와 육로가 서로 연결되어 수륙 교통망을 형성하였다. 발달한 교통망은 상업의 번영을 촉진하였다. 당대 주요 상업 도시였던 양주(揚州)는 강회 이남(以南) 8도(道)의 조량(漕糧) 뿐만 아니라 강회지역의 소금, 차, 월주(越州)의 도자기, 사천의 비단[蜀錦], 약재 등의 화물이 대운하를 통해 관중 지역이나 지방 각지로 운반되었던 곳이었다. 이 때문에 당조는 양주에 대도독부(大都督府) 또는 강회절도사(江淮節度使)를 설치했고, 강회도채방사(江淮都採訪使)와 염철전운사(鹽鐵轉運使)가 조운(漕運), 염운(鹽運) 등 물산의 운송을 주관하도록 하였다.¹²⁾ 이를 통해 당조는 강회지역의 재원을 확보하였고, 이들 물산을

8) 『唐會要』(北京: 中華書局, 1955) 卷78, 節度使, p.1433.

9) 『唐方鎭年表』(北京: 中華書局, 1980) 舊序, p.1287. “並, 汴戎士皆詔十萬, 洪, 福, 潭, 越不過萬人, 蓋以此也.”

10) 寧可, 「唐代宗初年的江南農民起義」, 『歷史研究』 3, 1961, p.52.

11) 張國剛, 『唐代藩鎭研究』, p.58.

12) 박근칠, 「唐後期 江淮運河와 新羅人의 活動」, p.52.

대운하를 통해 초주(楚州)를 거쳐 장안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당 후기 중앙재정이 동남 번진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남 번진의 조량과 함께 사천과 광둥(廣東)의 화물도 모두 수로를 통해 양주에 집결되었고 대운하를 통해 장안 등지로 운송되었다. 양주에서 장안으로 운송된 조량은 당 중앙재정의 기반이 되었다.¹³⁾ 이 외에도 양주에는 무역, 운송 등의 활동을 하는 외국 상인들도 많았다. 그러므로 양주를 중심으로 비단길, 광주 연해, 산둥반도를 통해 페르시아[波斯], 아랍[大食], 신라 등 여러 나라에서 왕래하는 무역로도 형성되었고, 양주에 모이는 화물은 더욱 다양해졌다. 이를 통해 상업과 수상 운송도 더욱 번성해졌다.¹⁴⁾

한편 대운하를 통한 조운으로 동남 번진과 연계된 중원형 번진도 중요하게 기능하였다. 수 양제(隋 煬帝) 때 개착된 대운하는 당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당은 동남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였다. 대운하는 양주, 낙양(洛陽), 장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남북 동서를 연결하여, 주로 영제거(永濟渠), 통제거(通濟渠), 산양독(山陽瀆: 한구)과 강남하(江南河) 등 4개의 수로로 구성되었다. 영제거는 북쪽의 탁군(涿郡)에서부터 남쪽의 낙구(洛口: 판저)까지 연결되고, 통제거와 황하(黃河)에서 교차하여 접했다. 통제거는 서쪽의 낙양(洛陽)에서 판저(板渚), 변주(汴州)를 거쳐 동쪽의 사주(泗州: 우이)까지 황하와 회수를 이었다. 산양독은 북쪽의 초주(楚州: 산양)에서 양주[강도]를 거쳐 남쪽의 경구(京口)에서 회수와 장강(長江)을 연결하였다. 강남하는 북쪽의 경구에서 남쪽의 여항(餘杭)까지 이어졌는데, 이로써 대운하는 남북과 동서를 연결시켰다. 광주 연해 및 사천과 양주 등지의 화물은 편리한 대운하를 이용하여 화북, 관중 지역으로 운송되었다. 당 후기에 당조는 대운하를 이용하여 동남지역에서 납부한 세금을 장안으로 운송했을 뿐만 아니라 대운하를 통해 동남지방 전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대운하에서 가장 중요한 조운 노선은 회수와 황하가 연결되어 낙양, 장안에 도달할 수 있는 통제거였다. 통제거가 통과하는 변주, 송주(宋州), 사주, 숙주(宿

13) 傅玫, 「試論唐代藩鎮割據形成的原因」, 『歷史教學』 1965-2, 1965, p.21.

14) 운하를 통한 조운과 관련한 당조의 정책적 입장을 살피는 데에 왕경우(王慶武) 지음, 「당대 정치사에서 양자강(揚子江) 중류의 역할」(原題 Wang Gungwu, The Middle Yangtze in T'ang Politics, *Perspectives on T'a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위진수당 사학회 옮김, 『당대사의 조명』, 서울: 아르케, 1999 또한 유용하다.

州), 서주(徐州) 등은 대운하의 정상적인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특히 4주 중에 변주와 서주는 중원 변진과 하삭 할거변진의 경계지이기도 하였다.



[그림 2] 수(隋), 당(唐)대 대운하 노선도¹⁵⁾

건중(建中) 2년(781)에 당조는 하북, 산둥 등 할거변진에 대비하기 위해 변주에 축성(築城)하여 방어하였다. 이는 할거변진 절도사인 이정기, 이보신(李寶臣), 전열(田悅) 등의 불만을 가져왔다. 이들은 대군을 운하의 중요 지역인 서주에 파견하여 당조에 대비하였고, 운하의 중요 지점인 용교(甬橋)와 와구(渦口)에 군대를 주둔시켜 조량선(漕糧船)의 북상(北上)을 막았다. 강희의 조량 물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당조는 변주, 송주, 활주(滑州) 절도사에게 명령하여, 토번(吐蕃)을 방어하던 경서(京西)의 병마 2천 명을 파견하여 관동(關東)을 지켰다. 또 언성(鄆城)에 반주(搬州)를 설치하여 할거변진을 막았다.¹⁶⁾ 이후 무장(武將) 장만복(張萬福)을 호주자사(濠州刺史)로 임명하여 와구에서 조량을 호송하도록 하였으나,¹⁷⁾ 대운하 조운 노선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정기가 죽은 후에 아들인 이납(李納)이 모반하고, 부하 이유(李洧)가 서주에서 당조로 귀순한 뒤에

15) 박한제 외 4인 지음, 2015, 앞의 책, p.75.

16) 『舊唐書』(北京: 中華書局, 1975) 卷12, 德宗紀, 建中二年三月庚申朔, p.328.

17) 『舊唐書』 卷152, 張萬福傳, p.4076.

야 대운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이후에도 이처럼 반란하는 변진이 등장하였을 때 운하의 조운을 차단하였고, 강회의 물자를 신속하고 대량으로 장안으로 보낼 수 없게 되면서 당조의 재정 부족을 초래하였다.

결국 조운을 방해하는 변진의 모반을 제압하기 위해 당은 중원 변진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허용하여 조운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당은 중원 변진을 이용하여 할거변진의 반란도 견제하였다.¹⁸⁾ 원화(元和) 시기 성덕(成德)의 왕승종(王承宗)을 토벌하면서 재정적인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당 조정은 왕악(王鐔)을 보내 병력을 모집하고 전마(戰馬)의 구매를 지시하였다. 1년 후에 병사 5만 명, 말 5천 필 등 군사의 장비(裝備)가 충족해지자 당조는 이를 표창하였다.¹⁹⁾

한편 당조는 중원 변진이 대군을 보유하여 반란 변진을 토벌하고 조량의 운송을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원 변진에서는 유현좌(劉玄佐), 왕지흥(王智興) 등 교만한 변장(藩將)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유현좌는 선무(宣武) 절도사였는데, 치청(淄青)의 이납이 유현좌에게 악행을 비난하자²⁰⁾ 왕지흥도 서군(徐軍)을 인솔하여 이납에게 저항하였다.²¹⁾ 이들은 반란 변진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절도사의 직위를 얻어 자신의 군사 권력을 키웠고, 반대로 당 중앙은 이들을 통해 반란을 억제하고 조운을 보장하려 했기 때문에, 중원 변진은 군대를 거느리고 대치하면서 항상 중앙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원 변진이 순지(順地)이기는 했지만 당조의 중원형 변진의 통치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당은 동남 변진에 대한 세금 확보를 중시하는 한편 서북(西北) 변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일찍이 “당나라는 서북쪽에 나라를 세웠으나, 근본을 동남쪽에 두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²²⁾ 이 평가는 당조의 정치 중심이 장안(서북쪽)이고, 경제 중심은 강남(동남쪽)이었다는 의미다. 안사의 난 전에는 서북 변방에 대군이 주둔하였는데 전란이 일어나자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 변방군을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토변은 기회를 틈타 당의 서북 변경을 침략해 하서(河

18) 朱德軍, 「略論唐代中原藩鎮的演變及其表現」, 『洛陽師範學院學報』, 2010-4, 2010, p.103.

19) 『舊唐書』 卷151, 王鐔傳, p.4061.

20) 『新唐書』 卷214, 劉玄佐傳, p.6000.

21) 『舊唐書』 卷156, 王智興傳, p.4139.

22) 王夫之 著, 尤學工 等 譯, 『讀通鑑論』(北京: 中華書局, 2019) 卷26, 宣宗九, p.8261, “唐立國於西北而置根本於東南.”

西), 농우(隴右)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 후에 복고회은(僕固懷恩)의 반란으로 인해 토번군은 다시 당을 공격하여 장안이 함락되었고 대종(代宗)은 임시로 장안을 떠났다. 이후에도 서북 변방은 계속하여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당은 동남 변진에서 세금 수입을 확보하면서 서북 국경의 안전을 중시하였다.

당이 서북 변방을 중시하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변방 이민족이 시도 때도 없이 침범했기 때문이다. 광덕(廣德) 원년(763)에 토번은 장안을 침공하여 대종이 도망치자, 광무왕(廣武王) 승굉(承宏)을 괴뢰 정권으로 세워 당조를 거의 전복시켰다. 이후 국경 지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력(大曆) 연간에도 토번은 경기(京畿) 근처에서 사람과 동물을 약탈하였다.²³⁾ 당조는 기존의 군진(軍鎭)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집하여 변경을 방어하였다. 대력 9년(774)에 유계(幽薊), 위박(魏博), 성덕(成德), 치청(淄靑), 변송(汴宋), 하중(河中), 신(申), 황(黃), 안(安), 식(息) 등 지역에서 병사 28만 명을 모집하였다.²⁴⁾ 이후 서북지역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20만 명 이상으로 유지했다.²⁵⁾ 또 하나는 서북 변방의 변수에 대하여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록산(安祿山), 복고회은 등 변수가 일으킨 반란은 당에 거의 절망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들은 서북 변방에서 막대한 병력을 가지고, 장안 부근에 집결하여 당조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였다. 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책군(神策軍)을 동원하여 서북 변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한편 내외 군사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서북 변진은 변방에 위치하여 토지가 척박하고 인구가 적었지만 주둔한 병력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서북 변진은 소재지에서의 영전세무(營田稅畝: 경작지에 세금을 걷은 것)를 통한 자급자족 이외에 8~9만 명의 병사에 대한 지출을 당 중앙의 탁지(度支)가 지급하였다.²⁶⁾ 이에 따라 서북 변진은 경제적으로 당 중앙에 의존해야 했다. 그 외에 서북 변진의 변수는 대부분 조정에서 임명하였고 그 부하도 조정에서 임명하였다.²⁷⁾ 당은 이러

23) 『資治通鑑』(北京: 中華書局, 1956) 卷225, 代宗大曆十年九月, p.7232.

24) 『全唐文』(北京: 中華書局, 1983) 卷48, 代宗「命郭子儀等備邊敕」, p.534.

25) 王鳳翔, 「唐代西北藩鎮與地域社會」, 『唐都學刊』, 2010-5, 2010, p.29.

26) 『陸宣公集』(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8) 卷18 「請減京東水運收腳價於沿邊州鎮儲蓄軍糧事宜狀」, p.189.

27) 王鳳翔, 2015, 같은 논문, p.30.

한 정치·경제·군사적 수단을 통해 서북변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이후 서북변방 변진은 중앙의 통치에 저항할 수 없었다.

서북 변방의 형세 변화는 당의 하삭 할거변진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원화 연간 당조가 성덕 절도사 왕승종에 대한 징벌 여부를 결정했을 때 이봉(李鋒)이 반대하였다. 반대한 이유는 바로 서융(西戎)과 북적(北狄)의 빈번한 침범 때문이었다.²⁸⁾ 이는 당조가 하삭 할거 변진보다 서북 변방의 형세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당나라는 서북쪽에 나라를 세웠으나, 근본을 동남쪽에 두었다[唐立國於西北而置根本於東南]”고 하듯이 만약 서북 변경을 잃으면 장안이 함락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 2 절 하삭(河朔) 변진의 할거양상과 당조의 대응

4가지 유형 중 마지막은 하삭 할거변진인데, 당조가 하삭변진의 평정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할거변진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치청진은 대운하상의 요새인 서주와 경계를 접하고 있었는데,²⁹⁾ 만일 할거변진이 출병하여 중앙 조운을 방해하여 중앙의 재원이 막히게 되면 조량을 필요로 하는 토벌 전쟁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러한 사태는 할거변진에 대한 평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앙 탁지(度支)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서북 변경변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서북 이민족의 침범이나 대군을 거느리는 변경 변진의 동향도 모두 당이 경계할 대상들이었다. 당은 이런 상황에서 방심할 수 없었고, 더욱이 할거변진을 토벌할 수도 없었다. 아울러 정치적 측면에서도 할거변진은 당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은 할거변진에 대하여 이른바 ‘자유방임’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하삭 변진이 할거상태를 유지한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우선 할거변진의 절도사는 중앙에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변진 내에서 선발하고 결정하여, 대부분의 경우 부사자계(父死子繼: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잇다), 형종제급(兄終弟及: 형이 죽고 동생이 이어받다), 비장(裨將) 옹립[밑에 장교와 병사가 옹립하다]의 방

28) 『資治通鑑』 卷238, 元和四年七月, p.7664.

29) 『資治通鑑』 卷226, 德宗建中二年, pp.7291~7295.

식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예컨대 위박, 성덕, 노룡 변진의 절도사는 모두 57명이 재위했는데, 당 중앙에서 파견된 절도사는 4명뿐이었고,³⁰⁾ 치청 절도사 이정기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이납이 치청 절도사가 되었다. 또 이납이 죽자 그의 아들인 이사고(李師古)와 이사도(李師道)가 치청 절도사가 되었다. 하지만 할거 변진의 절도사들이 비록 변진 내에서 선발, 임명되기는 하였지만, 각 진의 절도사 책립은 대부분 감군사(監軍使)의 인증을 받고 중앙에 보고한 후 재가를 얻어야 했다. 원화 시기에 성덕 절도사 왕승종이 죽자, 장수들은 그 아우인 승원(承元)에게 사위(嗣位)를 청하였다. 그러나 왕승원은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변진에 감군이 있으므로 먼저 감군사에게 청한 후에 변진 절도사를 이어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할거변진의 변수는 변진 내에서 결정했지만, 감군의 동의와 중앙의 승인이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할거변진에 부과된 세금은 중앙에 상공되지 않고 모두 변진 내에서 사용하였다. 안사의 난 이후 당은 양세법(兩稅法)을 시행하고 징수된 세액을 상공(上供), 유사(留使), 유주(留州)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각 주의 세금은 셋으로 나뉘는데, 일부는 중앙에 상공하고, 일부는 절도사가 사용하고, 마지막 일부는 본주(本州)에 남겨져 본주에서 사용하였다. 할거변진은 세금을 중앙에 상공하지 않았지만, 양세법은 시행되었다.³¹⁾ 정원(貞元) 18년(802) 2월에 채(蔡)·신(申)·광(光) 3주는 봄에 홍수가 나고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당도(當道) 양세는 장병(將兵)의 봄과 겨울의 의사(衣賜) 및 지용(支用)을 제외하고 각 공납의 금품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3년 동안 세금을 면제했다.³²⁾ 정원 연간(785-804)에 채·신·광 3주는 하삭 할거변진 가운데 회서(淮西) 변진에 속했다. ‘당도 양세’라는 것은 할거변진에서도 양세법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하삭의 할거변진은 중앙에 상공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당조에 진봉(進奉) 하였다. 780년에는 위박의 전열과 치청의 이정기가 각각 3만 필의 비단[絹]을 진봉하였다.³³⁾ 장경(長慶) 원년(821)에, 범양(范陽) 유총(劉總)은 말 15,000여 필을 진봉

30) 岑仲勉, 『隋唐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20, p.443.

31) 마쓰이 슈우이치(松井秀一), 「양세법의 성립과 전개」(原題 松井秀一, 「兩稅法の成立とその展開」, 『岩波講座 世界歴史』第6卷, 東京: 岩波書店, 1970), 임대희 외 옮김,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울: 서경, 2005; 당 후기 지역 구분을 전제하여 양세삼분제(兩稅三分制)를 살핀 연구로 박근칠, 「唐 後期 地域 區分과 地方財政의 운영」, 『중국학보』 41, 2002이 주목된다.

32) 『冊府元龜』(北京: 中華書局, 1956) 卷491, 邦計部, 鐫復三, p.5871.

하였다.³⁴⁾ 이러한 측면에서 할거변진은 중앙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앙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할거변진은 변진 내에 대군을 육성하여 중앙과 맞서기도 하였지만, 당조도 중원의 변진을 이용하여 할거변진을 견제하면서 쉽게 당조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당조의 여러 법령 규정들이 할거변진에게도 시행되었다. 하북(河北) 지역의 주, 현 등 행정 구역의 변경이나 폐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대력 4년(769)에 유주(幽州)의 범양, 귀의(歸義), 고안현(固安縣)을 분할(分割)하여 탁주(涿州)를 설치하였다.³⁵⁾ 원화 2년(807)에는 덕주(德州) 귀화현(歸化縣)을 새로이 설치하였다.³⁶⁾ 심지어 하삭 할거지역의 관리도 중앙 관직에 임명되거나 초치(招致)되었다. 원화 연간에 유주 막직(幕職)³⁷⁾ 이익(李益)은 중앙으로 초치되어 관직에 임명되었다.³⁸⁾ 치청진 운주(鄆州) 출신 고목(高沐)은 정원 연간에 진사로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³⁹⁾

한편, 당조는 각 진에 감군원(監軍院)을 설치하였고, 각 진도 장안에 진주원(進奏院)을 설치하였다. 할거세력인 하삭 변진에는 당조가 절도사를 파견할 수 없었지만 각 진 절도사의 책립은 모두 감군원의 재가를 받아 당조 중앙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반면에 하삭 절도사는 대부분 입조(入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변진이 장안에 설치한 진주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진주원은 중앙에 문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진봉 등이 이루어지는 경유처로서 기능하였다. 이처럼 감군원과 진주원은 중앙과 지방 변진을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당조가 할거지역에서 자신의 통치를 구현하고 변진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당조의 지배를 받았던 주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당조가 하삭 변진의 할거 상황을 제약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삭 변진이 중앙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정치적으로 절도사의 책립, 군사적으로 중원 변진의 견

33) 『資治通鑑』 卷266, 建中元年, p.7280.

34) 『冊府元龜』 卷169, 帝王部, 納貢獻, p.2034.

35) 『太平實字記』(北京: 中華書局, 2007) 卷70, 涿州, p.1411.

36) 『太平實字記』 卷64, 德州, p.1311.

37) 당·오대 막직관과 관련한 연구는 김종섭, 「唐·五代 幕職官의 임용방식과 역할」, 『동양사학연구』 71, 2000을 참조.

38) 『舊唐書』 卷137, 李益傳, p.3772.

39) 『舊唐書』 卷187下, 高沐傳, p.4911.

제 등의 조치로 인해 하삭 변진은 여전히 중앙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조가 할거변진 세력을 제약하려고 하면 오히려 할거변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중 2년(781)에 성덕절도사 이보신이 죽고, 그 아들 이유악(李惟嶽)이 부위(父位)의 계승을 요구하자, 덕종(德宗)은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 후에 성덕의 이유악은 치청의 이정기, 위박의 전열과 함께 대운하의 중요한 관문인 서주에서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정기가 병으로 죽고 그 아들 이납이 스스로 치청진 절도사의 직무를 이어받았다. 이어 건중 3년(782)에는 치청진과 하삭 3진이 연합하여 ‘칭왕(稱王)’했고, 당조와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할거변진과 전쟁에서 당조는 일부 승리를 거두었지만 반란 세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다. 783년에 장안에서 ‘경원병변(涇原兵變)’이 일어나 주체(朱泚)가 황제를 칭하고 당 덕종이 몽진(蒙塵)하자, 당 중앙은 더 이상 할거변진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할 수 없었다. 다음해 덕종이 ‘죄기조(罪己詔)’를 내려 주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한 죄를 묻지 않겠다고 밝히자 치청 등 변진들이 모두 반란을 중지했다. 이납도 당조에 의해 정식으로 치청절도사에 임명되었다.⁴⁰⁾ 따라서 당조가 할거변진의 절도사를 책립하지 않으면, 변진의 변수가 반란을 일으켜 중앙과 대항하면서 대운하 조운을 방해하고, 장안의 재정에 위협을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당조는 정상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할거변진의 용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서북변강의 변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변경 변진에서는 이러한 재정지원의 부족을 이유로 변진 내에서 몇 차례의 반란이 일어났고,⁴¹⁾ 이는 당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할거변진의 절도사는 왜 당조의 책립이 필요했을까? 할거변진이 함부로 당조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광덕(廣德) 원년(763)부터 건부 원년(874)까지 111년 동안 모두 171건의 변진 반란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하삭 할거형 변진 반란은 65건을 차지하였다. 이 65건의 반란 중에 변진이 당조 중앙에 대해 반란한 건수는 13건으로, 약 20% 정도만을 차지하였다, 나머지 52건인 80%의 반란은 변진 내부에서 발생한 반란이었다. 이러한 변진 내부

40) 건중 3년(782) 이후 덕종대 변진의 ‘칭왕’에서 덕종의 ‘죄기조’ 大赦까지의 과정은 정병준,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동양사학연구』 137, 2016를 참조할 만하다.

41) 『陸宣公集』 卷20, 「請邊城貯備米粟等狀」, p.222.

의 반란은 하삭 할거형 변진이 가장 많이 차지했지만 다른 3가지 유형의 변진에서도 다수 발행하였다. 이 171건의 반란 중에 중앙에 대항한 것은 22건으로 13%에 불과하다. 내부 병변(兵變)이 99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절도사가 부하를 죽인 이유로 발생한 반란은 14건으로 7%를 차지하며, 장교(將校)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37건으로 20%를 차지했다. 87%의 반란이 변진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80%의 변진 반란은 병사가 변진 장수에게 반란하여 일으킨 경우이다.⁴²⁾ 이처럼 내부에서 발생한 빈번한 반란은 할거변진이 당조 중앙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변진 내부에서 반란이 발생한 원인은 우선 외부적으로 각 유형의 변진이 서로 대립하였고, 중원 변진과 하삭 변진이 할거와 비할거 상태에서 서로를 제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원 변진과 변경 변진이 내외 병력의 유지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고, 중원 변진, 변경 변진, 동남 변진은 당조 중앙에 대하여 군사력과 재원 등의 측면에서 서로 대립하기도, 의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서로의 군사력이 비슷하고, 또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진도 쉽게 당조를 무시하며, 균형의 상태를 깰 수는 없었다. 게다가 변진 병사들의 성격도 단순하지 않았다. 변진 병사는 대부분의 경우 유민(流民), 객민(客民)을 모아 충원하였다.⁴³⁾ 이들은 용병으로 직업적 군인이며 본인 및 가족의 생계를 부담하였다.⁴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이 생길 경우 반항하게 되거나,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장수를 죽였다. 무녕(武寧)의 장수 강계영(康季榮)이 병사들을 배려하지 않자 병사들은 그를 쫓아냈고,⁴⁵⁾ 하삭 위박에서 아군(牙軍)에게는 하사품을 풍족하게 주었으나, 하사품의 수량이나 금액에 대한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지 못하고 주인 일족을 살해하였다.⁴⁶⁾ 변방의 빈녕(邠寧)변진에서 변수가 바뀌었을 때 당조는 이조채(李朝案)를 임명

42) 張國剛, 『唐代藩鎮研究』, p.61.

43)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楊志玖·張國剛, 「藩鎮割據與唐代的封建大地主所有制—再論唐代藩鎮割據的社會基礎」, 『學術月刊』, 1982-6, 1982, pp.45~50를 들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東京: 三省堂, 1942, pp.211~214; 毛漢光, 「魏博二百年史論」, 『中國中古政治史論』,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2, pp.349~417 등도 주목된다.

44) 袁英光, 「試論唐代藩鎮割據的幾個問題」, 『唐史研究會論文集』,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0, p.280.

45) 『舊唐書』 卷19上, 懿宗紀, 咸通三年五月, p.653.

46) 『舊唐書』 卷181, 羅弘信附威傳, p.4692.

했으나, 군사들은 이공(李公) 휘하에 심복(心腹) 2천이 있으니, 만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아내와 자식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겠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다.⁴⁷⁾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변진 내부에서 변수에게 하사(下賜)를 요구하거나 변수를 협박하기도 했지만, 변진을 위해 영역을 넓히거나 당조에 대항하려는 의도나 욕구는 없었다.⁴⁸⁾

심지어는 절도사의 전쟁 요구도 병사들의 반대와 저항을 받았다. 이는 결국 교만한 변수의 반역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었다. 건중 연간 위박 절도사 전열은 전쟁을 주도했는데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이 10명 중의 7, 8명이나 되자, 병사들은 모두 전쟁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⁴⁹⁾ 조정은 공소부(孔巢父)를 파견하여 위문하였는데 전열이 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서(田緒)는 전열을 살해하고 대장(大將) 형조준(邢曹俊) 등과 공소부에게 귀순하였다.⁵⁰⁾ 내부적으로 병사의 전쟁 기피와 반대로 인해 절도사는 당조에 반항하지 못했다. 또 이들 병사는 직업 용병이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변수와 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농병(農兵)처럼 변수에게 강한 의존성을 갖지는 않았다. 게다가 안사의 난 후에 당조는 재정적으로 양세법을 실시하였고, 상공, 유사, 유주라는 재부(財賦) 3분제를 제정하여 변진이 스스로 군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이렇게 하여 각 진의 변수는 지방 재정권을 주도하면서 군사비도 지방 자체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익 분배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병사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자연스럽게 당조 중앙이 아닌 변수와 반대편이 될 수밖에 없었다.⁵¹⁾ 변진 내부의 병사가 이익을 위해 절도사에게 자주 반대와 항거를 하였지만 당조 중앙에 대한 반항심은 거의 없었다. 당 후기의 재상 이덕유(李德裕)가 말한 것처럼 “하삭은 비록 병력이 강하지만 자립할 수 없고 조정의 관작위명(官爵威命)을 빌려 군정(軍情)을 안정시켜야 했다”⁵²⁾고 하였다.

또 절도사의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에게는 중앙의 책립이 필요하였고 이

47) 『資治通鑑』 卷236, 貞元十七年六月, p.7595.

48) 楊志玖, 「試論唐代藩鎮割據的社會基礎」, 『歷史教學』, 1980-6, 1980, p.28.

49) 『新唐書』 卷210, 田承嗣附悅傳, p.5932.

50) 『舊唐書』 卷154, 孔巢父傳, p.4096.

51) 朱德軍, 「略論唐代中原藩鎮的演變及其表現」, p.101.

52) 『資治通鑑』 卷248, 武宗會昌四年, p.8010, “河朔兵力雖強, 不能自立, 須借朝廷官爵威命以安軍情.”

는 절도사의 명분을 더 정당화시켰다. 안사의 난 이후 변진 절도사는 행정·군사·재정 삼권일치(三權一治)를 이루었다. 그들의 지배 하에는 병사뿐만 아니라, 토지를 많이 가진 장원주(莊園主),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대중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절도사에게는 중앙의 책립이 필요하였고, 이는 절도사의 명분을 정당화시켰다. 더욱이 할거변진의 절도사는 변진의 토착민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실재하였다. 위박의 전승사(田承嗣)는 평주(平州) 출신이다.⁵³⁾ 성덕의 이보신은 범양 주변의 해족(奚族)이다.⁵⁴⁾ 노룡의 이회선(李懷仙)은 유성(柳城) 호인(胡人)이고⁵⁵⁾ 치청의 이정기는 고려인으로 평로(平盧)에서 태어났다.⁵⁶⁾ 그들은 절도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넓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아니었고, 절도사의 신분으로 재부를 얻었다. 그래서 그들은 장원주 계급을 대표하지도 않았고 국가와 같은 방식인 징수된 세금으로 재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변진이 대량의 병사를 보유할 경우 필연적으로 변진의 세금은 증가되었고, 증가된 세금은 변진 주민들에게 징수되었다. 백성의 입장에서서는 인상되어 징수된 세금은 중앙에게 상공하거나 변진 내에 절도사가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절도사와 지주 장원주는 세금의 징수 문제를 두고 대립하였고, 지주 장원주 등 변진 내 백성들은 세금의 인상을 이유로 전쟁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되었다. 대토지 소유자는 중앙 정부에 반항하지 않았고, 자신의 근본적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변진의 할거를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한편 용병인 관건(官健)은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군대였다.⁵⁷⁾ 때문에 변진 내에서 병사들이 자주 난을 일으켰고, 관내 지주 계급은 ‘지지하지 않고’, ‘합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절도사는 중앙의 책봉을 통해 변진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관내 주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상황에서 안사의 난 이후 할거변진은 당조 중앙에 세금을 더 이상 상공하지 않았다. 당조의 모든 재원은 동남 변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 대운하가 반란 때문에 자주 통하지 않게 되면서 중앙재정이 점차 부족해지고, 군사

53) 『舊唐書』 卷141, 田承嗣傳, p.3837.

54) 『舊唐書』 卷142, 李寶臣傳, p.3865.

55) 『舊唐書』 卷143, 李懷仙傳, p.3895.

56) 『舊唐書』 卷124, 李正己傳, p.3534.

57) 楊志玖·張國剛, 「藩鎮割據與唐代的封建大地主所有制-再論唐代藩鎮割據的社會基礎」, p.47.

력도 약화되어 강력한 중앙군도 없어지면서 통치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당조는 중원 변진의 도움을 받아 반란을 평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중원 변진은 대군을 보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쟁을 했을 때 중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할거변진을 완전히 소멸할 수 없거나 소멸하고자 하지도 않았다.⁵⁸⁾ 한편 변방 이민족은 여전히 침범하였고 변경 변진은 토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내부에서도 수시로 사병이 반란하는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한편 당조 또한 변진들의 상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고, 더 이상 현실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으며 심지어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무리인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당은 사안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전지역을 관리하고자 했는데, 우선 동남 변진의 세수(稅收)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앙 기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었다. 이후 조세수입으로 변경변진의 군사비를 지원하였다. 하삭 변진은 할거하였지만, 당조가 절도사를 책립하여 절도사의 변진 내 합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면, 할거변진의 원리에 따라 중앙 통치에 반항하지 않았다. 군사적으로는 중원 변진의 견제도 있어서, 할거변진은 항상 당의 통제 내에 있었다. 이로 인해 당 중앙은 “양해상교취기경(兩害相較取其輕: 두 손해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손해를 선택한다.)”하며 재정 부족과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할거변진에 대해 ‘고식(姑息)’ 정책을 실시하였다.⁵⁹⁾

아울러 할거변진은 군사·재정적으로 당조 중앙에 반항하였지만, 군사적으로는 중원 변진의 제약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당 중앙에서 책립한 정당한 신분을 인정받은 절도사 제도도 필요했다. 할거변진의 내부에서는 병사들이 이익을 위해 빈번하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변수의 잔혹한 통치에 대해 병사들이 변수를 살해했지만, 병사들은 대부분 당조 정권을 전복하려는 야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할거변진의 세력을 영역 밖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현실의 국면을 유지하는 정도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당 중앙과 할거변진이 서로 ‘묵계(默契)’하듯이 현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당조 중앙은 할거변진에게 최대의 자유를

58) 朱德軍, 「唐代中原藩鎮軍額與軍費問題初探」, 『陝西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11-2. 2011. pp.92~93.

59) ‘고식’이란 부녀자나 어린아이가 꾸미는 계책 또는 잠시 모면하는 일시적인 계책이라는 뜻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나 당장 편안한 것을 취하는 꾀나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편안하고자 변통하는 꾀를 의미한다.

주고 할거변진에게 세금을 받지 않았지만 변진 내에 웅립한 절도사에 대한 책립을 통해 절도사의 신분을 부여하였다. 할거변진은 이에 따른 현상적 이익에 만족하여 더 이상 중앙에 대해 반항하지 않았다. 당조 중앙은 할거변진이 대운하의 조운을 방해하지 않고 중앙재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정치적으로 당의 통치를 인정하는 한 할거 변진에 대해 ‘고식’ 정책을 채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 중앙과 할거변진은 서로 근본적인 이익 충돌이 없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산둥지역의 변진 세력에게도 적용되었다. 즉 할거변진인 치청진은 당의 ‘불간섭’ 정책 하에서 산둥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특히 이정기 가문이 신라, 발해 등과 해상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곳으로, 이러한 국제무역 활동으로 인해 많은 신라인이 당에 들어와 양국 간의 교류와 왕래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당의 치청진에 대한 ‘고식’ 정책에 따라 이정기 가문은 산둥반도의 지리적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여 신라, 발해와 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또 어떻게 무역 활동을 발전시켰을까? 그리고 이정기 가문의 국제무역 활동은 산둥 내의 신라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이씨 가문이 멸망하고 장보고가 이씨 가문이 보유한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결합하여 당의 경내에서 산둥을 기지로 한·중·일 3국의 무역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 장 산동의 지정학적 특질과 이정기(李正己) 가문의 경제활동

당조와 할거번진은 상호 목계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근본적인 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국면을 유지하였다. 당 중앙은 할거번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절도사를 책봉하여 추인해 주고, 세금도 징수하지 않았다. 할거번진은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더 이상 중앙에 저항하지 않아, 쌍방의 권력이 서로 비슷한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할거번진 가운데 가장 유력한 번진이던 치청진은 이러한 상호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도사 이정기와 그 가문의 통솔 하에 산동지역의 독특한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여 신라, 발해 등의 주변 국가와 무역 활동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씨 가문은 무역 활동을 통해 얻은 경제적인 여력을 기반으로 당 중앙과 ‘할거’ 상태를 지속하면서 54년 동안 산동지역을 통치하였다.

산동반도의 지리적 특징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한반도, 요동반도(遼東半島)와 마주보고 있었던 점에 있다. 산동반도에서 북상(北上)하면 요동반도를 통과하여 발해에 도착할 수 있고, 동쪽으로 신라를 지나 일본에도 도달할 수 있다. 남쪽으로 등(登)·내(萊)·밀(密) 등 주(州)의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면 동남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장거리 항해는 제한되었기 때문에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경유지를 설정해야 했다. 산동반도는 발해, 신라 등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 양국으로 출·입국하는 ‘중계소’ 역할을 하였다. 발해와 신라인들은 중국 입국을 위해 산동의 등주에 도착한 뒤 장안·낙양·양주 등지로 이동했다. 당대 초기부터 등주는 발해와 신라 양국 사신과 백성이 당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였다.

『신당서』의 “등주해행입고려발해도(登州海行入高麗渤海道)”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⁶⁰⁾ 산동 등주에서 발해와 신라로 향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산동반도 북쪽의 등주에서 출해(出海)하여 묘도군도(廟島羣島)를 거쳐 요

60) 『新唐書』 卷43下, 地理志, p.1147.

동반도에 도착한 후 여기서 북상하면 ‘발해도(渤海道)’를 통과하여 발해에 도달하고, 남하하여 해안선을 따라 계속 항해하면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신라왕성’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려도(高麗道)’이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방식은 항해 도중 양식 보급 및 담수 보급이 편리하여 당시로서 가장 안전한 항로였다. 등주 북부에서 출발하여 묘도군도의 많은 섬을 표식으로 삼아 항해하다가 요동해역에 진입하여 해안을 따라 우회하게 되면 항해자의 시선은 항상 육지를 벗어나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하면 폭풍을 맞거나 선박이 파손되더라도 조속히 육지로 향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그림 3] 산둥반도와 신라 간의 해로 노선도⁶¹⁾

이후 조선과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출항구가 등주 북부에서 등주 남부로 이동하게 되자 등주 남부에서 황해(黃海: 한국은 서해로 칭함)를 통과하여 한반도로 직통하게 되었다. 현경(顯慶) 5년(660)에 당은 신라의 요청에 따라 좌무위대장군(左武衛大將軍) 소정방(蘇定方)에게 수륙 대군 10만 명을 이끌고 백제로 진격하게 하였다. 8월에 소정방은 성산(成山)에서 출항하여 한반도 서부의 웅진강에 도착해서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⁶²⁾ 성산은 등주 문등현의 남쪽에 위

61) 樊文禮, 「唐代“登州海行入高麗道”的變遷與赤山法華院的形成」, 『中國歷史地理論叢』, 2005-2, 2005, p.118.

62) 『資治通鑑』 卷200, 顯慶五年八月, p.6321.

치하고 있어, 성산에서 출항한 당군은 황해를 통과했을 것이다. 이로써 황해는 직항으로 신라와 왕래하는 주요 교통로가 되었다. 대중(大中) 원년(847)에 엔닌은 적산포에서 신라 배를 타고 귀국할 때도 성산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직항하는 노선을 이용했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항로를 이용해 신라에 도착하는 데는 2박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⁶³⁾

한편 양자강에서 한반도 서남부로 가는 항로도 있었다. 이 항로는 이미 9세기 중반에 이용되었지만, 산동반도에서 황해를 건너 신라로 가는 항로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⁶⁴⁾ 845년 엔닌은 양주나 초주에서 출항하여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현지 장관은 엔닌의 요청을 거부했고 엔닌에게 반드시 등주에서 출항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⁶⁵⁾ 또한 839년 일본 건당사도 일본으로 돌아갈 때 양주에서 해로를 거쳐 등주에 도착한 후, 등주에서 출항한 것을 보면,⁶⁶⁾ 당시 등주는 신라·발해 및 일본으로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공식 통로였다. 따라서 당 후기 당과 신라, 발해 등 사이의 교류는 산동반도의 등주가 주요 거점 도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조 중앙은 치청진을 신라, 발해 등과 교류하는 공식 출입 통로로 인정해 주었다. 이로써 신라·발해에서 온 사람이나 화물은 반드시 치청을 경유하여 양주 등 여타 지역으로 갈 수 있었고, 반대로 양주 등 기타 지역에서 온 상품도 치청을 경유해야 신라, 발해 등으로 갈 수 있었다. 765년 이정기가 치청절도사, 압신라발해양번사(押新羅渤海兩蕃使)가 된 이후 이씨 가문은 산동반도가 당의 양주 등지와 발해, 신라 간의 ‘중계소’였던 지리적·정치적 장점을 바탕으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더욱이 당조가 할거번진에 대하여 ‘고식’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씨 가문도 할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대군을 육성하는데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필요하였던 상황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정기 가문은 산동 지역에서 신라, 발해와의 국제무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당은 영태(永泰) 원년(765) 이정기에게 평로치청절도관찰사(平盧淄青節度觀察使),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라는 직위를 수여하였고, 이씨 가문은 원화 14년(819)까지 54년 동안 치청진을 통치하였다. 이씨 가문이 관할

63) 『入唐求法巡禮行記』(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卷4, 會昌七年九月二日, p.202.

64)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신라사학보』 21, 2011, pp.129~130.

65)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會昌五年七月三日, p.189.

66) 『入唐求法巡禮行記』 卷1, 開成四年七月廿三日, p.64.

하던 54년 동안 치청진은 이정기, 이납, 이사고와 이사도 등 이씨 가문 3대 4명의 지배를 받았다. 이씨 가문은 이 54년 동안 국경 주변의 신라, 발해 등과의 다양한 형태의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우선 이정기 시기부터 등주에서 운영되던 발해마시(渤海馬市) 무역이 있다.⁶⁷⁾ 안사의 난 이후 하삭 3진의 할거로 인해 발해에서 당으로 가는 육로가 막혔다.⁶⁸⁾ 하삭 3진은 위박, 성덕, 유주(노룡) 번진을 가리키는데, 이씨 가문이 54년간 치청진을 통치하면서 중앙에 대해 일시적으로 할거했던 것과는 달리, 하삭 3진은 안사의 난 이후부터 당조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당 중앙에 대하여 저항하였던 할거번진이었다. 하삭 3진은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군사력이 막강하였고, 지리적으로도 공략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3진은 서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당조가 그 중 1진을 공격하면 다른 2진이 공격을 받는 1진을 지원하면서 당조의 통치로부터 오랫동안 독립적 상태를 유지한 가장 치열한 할거 지역이었다. 당조는 결국 하삭 3진 번수의 세습(世襲)이나 자립을 승인·허용해 주었다.⁶⁹⁾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의 말은 주로 해로를 통해 등주와 청주로 들어갈 수 있었다.⁷⁰⁾ 당시 말은 군대 편성이나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군대에 말의 수량에 따라 군사력의 강약을 판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씨 가문은 자신들이 직접 마필(馬匹) 무역을 통제하면서 치청진의 군사력 증대와 함께 자신들의 지배력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선무(宣武) 등 번진과도 말을 거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⁷¹⁾ 이로써 산동 지역은 발해 등 주변 국가와 중원 당조 간의 무역 중계 기능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와의 마시 무역을 경영하는 것 외에도 이씨 가문은 해적 세력에 편승하여 신라인을 강탈해서 노예로 매매하는 거래에도 가담하였다. 당대 초기 주변의 소수민족과 외국 노비를 매매하는 시장이 설치되었다. 당시 노비 거래가 가장 빈번했던 곳은 영남(嶺南), 검중(黔中), 복건 등지였고 정도인 장안이나 등주, 내주, 형주(荊州), 익주(益州), 양주 등지에서도 노비 매매시장이 있었다.⁷²⁾ 특히

67) 『舊唐書』 卷124, 李正己傳, p.3535.

68) 車垠和, 「8-9世紀唐羅日地方涉外權力的增強與東亞貿易圈的形成」,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p.48.

69) 王援朝, 「唐代藩鎮分類芻議」, pp.118~119.

70)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臺北: 五南圖書出版有限公司, 1984, p.90.

71) 정병준, 「이정기(李正己) 일가의 교역활동과 장보고(張保臯)」, 『동국사학』 40, 2004, p.536.

무측천 시기에는 “하남과 하북의 소와 양, 형주, 익주의 노비를 시장에서 매매하였는데 등주와 내주에는 감(監)을 두고, 판매된 금액을 군자(軍資)로 보충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⁷³⁾ 즉, 684년(무측천 시기)부터 등주에 노비 교역 시장이 생겼고, 이후 노비 무역이 점점 활발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씨 가문이 멸망한 지 2년 후 당시 치청절도사였던 설평(薛平)이 상주를 하여 신라인을 노비로 매매하는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청구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라인이 언제부터 등주의 노비 교역 시장에서 매매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현존 사료에서 그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원화 11년(816) 신라가 생구(生口)를 금하여, 근계(近界) 각 주부(州府) 장관에게 제거(提舉)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였으며, 숙위(宿衛)하던 신라의 왕자 김장렴(金長廉)이 장진(狀陳)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명(命)을 내렸다.⁷⁴⁾

장경 원년(821)에 평노군 절도사 설평[薛蘋]은⁷⁵⁾ 상주하기를, 해적이 신라 양구(良口)를 약탈하여 관할하던 등주·내주 경계에 도착하여, 연해 여러 도에 노비로 팔아 거래하고 있다. 신라는 비록 외이(外夷)였지만 정삭(正朔)을 상수(常受)하며, 조공도 끊이지 않아, 내지와 다름이 없다. 백성, 양구(良口) 등을 계속 해적이 약탈하여 노비로 거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전에 금지하는 제칙(制敕)을 내렸지만 관할 지역에 오랫동안 도적 때가 횡행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수복한 후에도 거리낌 없이 서로 매매하여 그 폐단이 특히 심하다. 명칙(明敕)을 보여 지금부터 신라에서 양인을 팔아넘기는 등 행위를 모두 금단하기 바란다. 당 목종(唐 穆宗)은 칙지를 내리니: 이에 따르도록 하라.⁷⁶⁾

72) 李季平, 『唐代奴婢制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6, p.205.

73) 『新唐書』 卷118, 張廷珪傳, p.4261.

74) 『冊府元龜』 卷42, 帝王部, 仁慈, p.481. “憲宗元和十一年, 禁以新羅爲生口, 令近界州府長吏切加提舉, 以其國宿衛王子金長廉狀陳, 故有是命.”

75) 당은 이씨 가문을 멸망시킨 후 치청 번진을 셋으로 나누었다. 설평은 평노군 절도사였고 淄, 靑, 齊, 登, 萊 5주를 관할하였으며 압신라발해양번사도 겸임하였다(『舊唐書』 卷124, 薛嵩傳, p.3526).

76) 『唐會要』 卷86, 奴婢, p.1571, “長慶元年三月平盧軍節度使薛蘋奏, 應有海賊掠新羅良口, 將到當管登, 萊州界, 及緣海諸道, 賣爲奴婢者. 伏以新羅國雖是外夷, 常稟正朔, 朝貢不絕, 與內地無殊, 其百姓良口等, 常被海賊掠賣, 於理實難. 先有制敕禁斷, 緣當管久陷賊中, 承前不守

신라인을 약탈하여 노비로 매매했던 상황을 816년에 이미 당 중앙에서 금단하였다. 즉 816년 이전에 신라인을 약탈하여 노비로 매매하는 일이 대규모로 성행하였다. 더욱이 설평의 상주에서 “이전에 금지하는 제칙(制敕)을 내렸지만 관찰 지역에 오랫동안 도적 때가 횡행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듯이 이씨 가문이 산동지역을 통치한 54년 동안, 신라인을 노예로 매매한 것은 이를 금지한 당의 칙령도 무시하면서, 해적들이 신라인을 약탈하여 등·내에서 노비를 거래한 일이 성행했던 것이다. 치청진에 대해 ‘고식’ 정책을 채택했던 당조 중앙도 등·내 지역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이씨 가문이 신라 노비를 대규모로 매매하는 상황을 주목하였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 없다. 즉 등·내 지역에서 신라 노비 무역이 장시간 활성화되던 것은 당조의 이씨 가문에 대한 지지와 묵인과 연관되었다. 더욱이 당조가 이씨 세력을 소멸하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등·내 지역에서 해적들이 신라 양민을 약탈하여 노비로 삼은 사실이 존재하였다. 이씨 가문은 치청 경내에서 표면적으로는 당조가 허용하지 않았던 마시와 노비 무역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산물에 대한 무역도 빈번히 대량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씨 가문은 발해·신라 등과의 무역거래를 빈번히 진행하는 한편 당 경내에서도 무역 활동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정원 8년(792) 치청진 절도사가 된 이사고가 주도했던 무역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주목된다.

李師古가 많은 토산품을 탐하여 상인을 진휼하도록 하령(下令)하였으며, 운(鄆)은 회해(淮海)와 가까웠기 때문에 천하진보(天下珍寶)가 출입(出入)하여 왕래가 하루도 끊이질 않았다.⁷⁷⁾

이사고는 상업 무역을 중시하였고 상인에 대한 우대를 강조하였다. 운주는 치청진의 치소(治所)로서, 당시 번진은 주로 치소의 명칭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운은 치청진 자체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해는 양주를 포함한 회남

法度。自收復已來，道路無阻，遞相販鬻，其弊尤深。伏乞特降明敕，起今已後，緣海諸道，應有上件賊詿賣新羅國良人等，一切禁斷。敕旨，宜依。”

77) 李商隱, 『樊南文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卷8, 雜記, p.486. “李師古貪諸土貨, 下令恤商.-鄆與淮海近, 出入天下珍寶, 日日不絕.”

(淮南) 번진을 가리킨다. 즉 치청과 회해는 거리상 가까워서 해로를 통해 두 지역 간 무역이 편리하게 진행되었다. 앞에 지적했듯이 산동은 발해, 신라와 무역이 빈번하였고 회해에서 치청까지 많은 물량이 빈번하게 수입된 것을 보면 산동은 신라·발해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겠다. 8세기 말 대부분 번진이 군리(軍吏)나 상인을 상업이 번창하던 양주로 보내 현지에서 점포를 열어 무역하면서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⁷⁸⁾ 이사가가 상업을 중시한 것과 회남과 빈번한 무역 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이씨 가문도 양주에 점포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씨 가문의 활동 시기부터 산동지역은 회해(강회지역)와 신라·발해 간의 ‘무역 중계소’ 역할을 담당했고 이는 이후 장보고가 산동에서 무역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정기와 이납이 치청절도사가 되면서 당조는 두 사람에게 “해운 압신라발해양변사”라는 직위를 부여하였다. ‘압’은 관장이라는 뜻이고, ‘해운’은 이정기와 이납에게 해운으로 발해와 신라의 공물을 산동 경내까지 운송하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이사가와 이사도가 치청절도사가 되었을 때 당조는 그들에게 ‘해운육운신라발해양변사(海運陸運新羅渤海兩蕃使)’라는 직위를 부여하였다. 이전의 ‘해운’에 ‘육운’도 추가하여 부여하였다. ‘육운’을 통해 치청절도사는 신라와 발해의 조공단이 당나라에 입국한 후 공물을 경사까지 운송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이씨 가문은 해로 운송만을 주도하다가 육로와 해로를 같이 관장하면서 해외 공물을 경사까지 운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이로써 치청절도사가 신라, 발해 간의 외교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씨 가문이 국경에서 신라, 발해 등과 국제무역을 주도하기가 더욱 편리해졌다.

당조 입장에서 보면 이씨 가문에게 ‘압변사’라는 직위를 부여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우선 안사의 난 때문에 당의 기미(羈縻) 부주현(府州縣) 제도가 파괴되었고 중앙은 더 이상 주변 이민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또한 경내의 각 번진 절도사 특히 할거번진 절도사의 권한도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조는 이씨 가문에게 ‘압변사’라는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발해, 신라와 외교를 강화하였고, 이씨 가문의 세력을 통해 발해와 신라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78) 『唐會要』 卷86, 市, 大曆十四年七月, p.1582.

732년 발해가 등주를 침해한 사건으로⁷⁹⁾ 당은 발해, 신라 등을 경계하게 되었다. 게다가 치청진은 이때부터 중앙과 적대하는 할거변진으로 경내를 절도사가 관장하면서 세금도 중앙에 상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조가 이씨 가문에게 ‘압변사’라는 직위를 부여한 사실과 상관없이, 이씨 가문은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여 산동 경내에서 발해, 신라 등과 무역 활동은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압변사’가 부여되면서 신라·발해를 치청진에서 군사적 또는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고, 당조의 군사력으로 외족을 방어, 관리하지 않아도 되었다. 결국 이씨 가문이 이끈 치청진은 발해, 신라 등과의 왕래가 더욱 빈번해졌으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치청진의 중앙으로부터의 할거도 어느 정도 심화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정기 가문은 산동 지역의 지리적 우세에 의존하며 당이 치청을 간섭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교권을 부여했던 배경 하에서 발해, 신라 등과 적극적으로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하삭 3진의 격렬하고 장기간의 할거로 인해 발해가 육로를 통해 당으로 진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때 발해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산동 지역은 최적의 교통로가 되었다. 신라는 당초 고구려가 육로를 차단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당과의 해로 왕래를 발전시켰다. 신라와 바다를 사이에 둔 산동은 자연히 가장 좋은 상륙지점이 되었다. 이후 등주는 신라와 발해를 왕래하는 공식적인 출입구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산동반도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회수에 들어갈 수 있고 당대 상업이 가장 번창한 도시인 양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 항로는 당의 조운 노선이 양주에 출발하여 통제거를 거쳐 장안, 낙양으로 가는 노선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치청진은 당조 중앙의 입장에 거슬리지 않았고, 조량은 안전하고 빠르게 장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당조는 회수에서 해안선을 따라 산동으로 항해하는 무역로에 대해 여전히 ‘고식’이라는 태도와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산동반도는 이씨 가문의 통솔 하에 이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무역 중계소 역할을 하였다. 신라·발해의 특산물들은 치청진을 통해 당으로 유입되었고, 당 경내의 화물 또한 마찬가지로 치청진을 거쳐 신라와 발해로 유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발해의 말은 해로를 통해 등주와 청주마시로 들어가 치청진의 군

79) 『舊唐書』 卷199下, 渤海傳, p.5361.

사력을 강화시키고 중앙과 할거 상태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씨 가문에게도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왔다. 심지어 등주의 마시무역은 북송(北宋)까지 이어졌다.⁸⁰⁾ 편리한 수로와 당(唐)·신라(新羅)간 우호적인 관계로 산동을 왕래했던 신라인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씨 가문이 치청을 장악한 이후 신라인들을 약탈하는 해적 활동을 은근히 지지하면서 산동 경내의 신라 인구수가 더욱 많아졌다. 신라인은 산동을 통해 당으로 들어와 대부분 무역 혹은 운송업 등에 종사하며 양주에서 산동반도를 거쳐 신라를 계속 왕래했다. 바로 이 시기부터 산동의 ‘무역 중계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후 장보고가 산동에서 국제무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발해, 신라와 양주 등 지역 간의 무역 활동을 기반으로 이씨 가문이 산동을 통치했던 기간 동안 경제력이 증가하였고, 이씨 가문이 이끈 치청진의 할거는 더욱 심화되었다.

80) 『冊府元龜』 卷999, 外臣部, 互市, p.11728.

제 4 장 산동 지역 신라인의 활동과 장보고의 등장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은 치청진에 ‘고식’ 정책을 실시하면서 치청진의 주도자 이정기 가문에게 ‘해운육운신라발해양변사’라는 직위도 부여하여 신라와 발해의 외교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당조의 간접적 지지를 받은 이씨 가문은 산동반도를 통치한 54년 동안 신라, 발해와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이씨 가문은 산동지역에서 신라 노비의 거래까지도 묵인했기 때문에 산동지역내 신라인의 왕래가 더욱 많아지면서 신라촌이나 신라방도 다수 만들어졌다. 많은 신라인들이 당조의 경내에 모여들어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다양한 계층에 분포되어 있었다.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당조 경내에서 활동한 신라인에 대한 여러 기록이 있다. 특히 엔닌이 등주와 양주를 몇 차례 오가는 과정에서 만난 신라인들의 직업이나 등주와 양주 사이에서의 활동 노선 등을 파악할 수 있다.⁸¹⁾ 다음으로는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등주와 양주 사이의 대략적인 노선과 재당(在唐) 신라인의 여러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다.

839년 3월 17일에 엔닌이 양주로부터 초주에 도착한 후에 일본 조공 사절단은 신라 선박을 고용해 귀국하였다. 모두 9척의 배가 있었는데, 본국 선원을 제외하고 바닷길을 잘 아는 신라 선원을 60여 명 고용하여 1배에 7명 혹은 6명 혹은 5명씩 신라 선원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초주에 많은 신라 선원과 선주(船主)가 살고 있었으며, 일본까지의 바닷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라, 당, 일본 간에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후 3월 25일에 엔닌 일행은 초주에서 배를 타고 연수현(漣水縣)에 도착한 후에 정박하였다. 이는 고용했던 신라 선원 및 초공(梢工)이 연수현에 하선한 후 밤새 돌아오지 않

81) 『입당구법순례행기』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 당 경내 신라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문경, 『당대 사회와 종교』,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6, pp.63~205; 권덕영,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서울: 일조각, 2005 등을 참조할 만 하다. 게다가 이미 지적된 바이지만 E.O Reischauer 또한 중국 내 신라인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박근칠, 「唐後期 江淮運河와 新羅人の活動」, p.45 주11; E.O 라이샤워 지음,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原題 *Ennin's Travel in T'ang China*, New York: Ronald Press Co, 1955), 조성을 옮김, 파주: 도서출판 한울, 1991, pp.268~288.

아 출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수현에도 신라방이 있었고 적지 않은 신라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²⁾

3월 29일에 연수현에서 출발하여 회수로 나와 해구(海口)에서 출항하여 북쪽으로 직진하여 신시(申時)에 해주(海州) 동해현(東海縣) 동해산(東海山) 동쪽에 도착하였고, 4월 5일에는 해주 숙성촌(宿城村) 신라인 택(宅)에 도착해 잠시 휴식했다. 따라서 해주 동해현 숙성촌에도 신라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라 선원과 일본 조공 사절단 일행이 배에서 내려 휴식하는 것을 보면 숙성촌도 신라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엔닌은 해주 해변에서 밀주로부터 목탄을 싣고 초주로 가는 신라선을 만났는데 인부가 10여 명이었다. 이어서 밀주 대주산(大珠山)에도 신라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소탄업(燒炭業)과 운수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월 8일에 엔닌이 해주를 떠나 항행하는 도중 풍난(風難)을 만나 등주 모평현(牟平縣) 경내로 진입하였다.⁸³⁾ 4월 19일에 모평현 소촌포(邵村浦)에 정박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에 신라인이 배를 타고 왔다. 엔닌은 그 신라인에게서 장보고와 신라 왕자가 동심(同心)하여 신라국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⁸⁴⁾ 등주 모평현 소촌포에도 신라인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당시 산동지역과 신라 사이에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졌고 산동 경내의 신라인들이 장보고와 밀접하게 연계되었던 사실도 확인되는데, 이런 이유로 신라 국내의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6월 7일에 엔닌은 문등현 청녕향(靑寧鄉) 적산촌(赤山村)에 도착하여 장보고가 건설한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 입주하였다. 엔닌의 기록에 의하면 법화원에는 승려 30여 명이 있고 장전(莊田)도 있었는데, 장전에서는 1년에 500섬의 쌀을 얻을 수 있었다. 법화원의 강경(講經) 예참(禮懺)은 모두 신라 풍속에 따라 진행하는데 황혼(黃昏: 저녁 7시~9시), 인조(寅朝: 새벽 3시~5시)만 당의 풍속을 따라 하였다. 집회한 도속(道俗)은 노소존비(老少尊卑)를 포함하여 모두 신라 사람이었다.⁸⁵⁾ 이에 따라 법화원의 승려도 모두 신라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840년 정월 15일에는 적산법화원에서 법화회(法華會)를 개최하였는데 집회한 남

82) 『入唐求法巡禮行記』 卷1, 開成四年三月, p.36~37.

83) 『入唐求法巡禮行記』 卷1, 開成四年三月, 四月. pp.37~44.

84)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四年四月, p.55.

85)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四年六月, p.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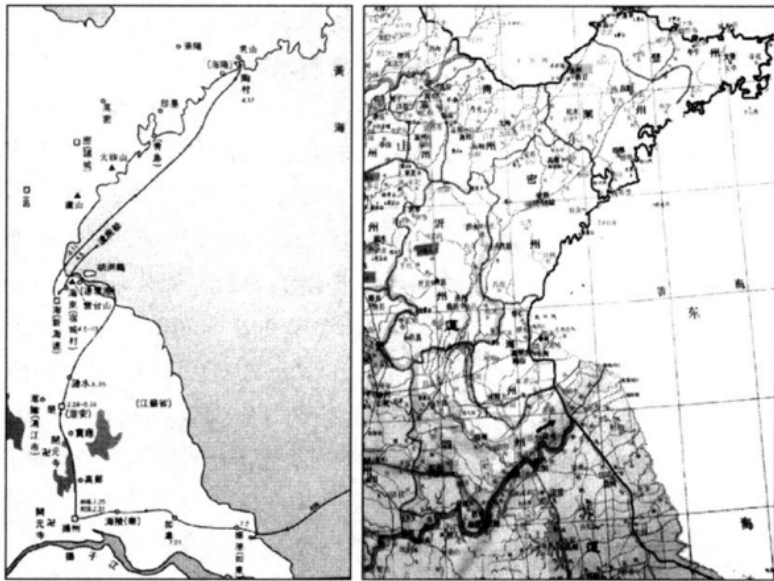
녀는 전날이 250명, 당일이 200여 명이었고,⁸⁶⁾ 적산법화원 부근의 인가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신라촌이 있었다.

847년 윤(閏) 3월 10일에 엔닌이 등주 모평현 유산포(乳山浦)에서 마포(麻布) 17단(端)을 주고 신라인 정(鄭)의 객차(客車)를 빌려서 옷가지를 싣고 밀주로 향했다. 17일 아침에 밀주 제성현(諸城縣) 대주산 주마포(駐馬浦)에 도착하여 신라인 진충(陳忠)의 배를 만나 석탄을 싣고 초주로 가려고 하였다. 엔닌이 진충과 뱃삿[船腳]을 비단 5필로 정했다.⁸⁷⁾ 즉 정은 육역(陸驛)을, 진충(陳忠)은 수역(水驛)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모두 신라인이 운영한 사역(私驛)에 속한다. 더욱이 진충이 석탄 무역도 경영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밀주에 신라인이 운영하던 수로 역참이 있었던 사실은 밀주에서 활동한 신라인도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후 6월 9일에 엔닌은 초주 신라방에서 신라인 김자백(金子白), 김진(金珍) 등의 편지를 받았는데 김자백과 김진의 배가 내주(萊州)에 도착한 후 일본으로 출발했다고 하였다. 이에 엔닌도 다음날 바로 초주에서 배를 타고 내주로 향했다. 엔닌이 내주 노산(牢山: 嶗山) 남초가장(南椒家莊)에 이른 후에 이 장(莊) 주민으로부터 김진이 남겨놓은 서신을 받았는데 적산포에서 기다리겠다고 알렸다.⁸⁸⁾

86)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五年正月, p.76.

87)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大中元年閏三月, p.199.

88)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大中元年六月, pp.200~201.



<지도 2> 엔닌의 중국순례도(二)

<지도 3> 唐代 淮水下流圖

[그림 4] 엔닌 일행의 초주와 양주 간의 왕래노선도⁸⁹⁾

이러한 사실에 따라 당시 신라인이 산둥반도를 ‘기지’로 하여 활동했던 무역 노선을 추정해볼 수 있다. 양주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초주를 거쳐 회수에 들어가서, 회수를 따라 해안으로 나와 출항하여 해주에 도착한 후 해안선을 따라 산둥반도의 등·내·밀주로 진입한 뒤 신라·일본으로 향했다. 또한 산동의 등·내·밀주에서 초주, 양주까지의 무역이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신라인도 적지 않았다. 산동 경내의 화물을 해안선을 따라 해주에서 회수로 운반한 후 초주, 양주까지 운송했다. 외국 상인이 산둥반도의 초주, 양주 사이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조가 주로 통제거를 장악하여 원활한 조운을 확보하고자 한 반면, 통제거와 반대 방향의 노선인 회구(淮口)에서 출항하여 해주를 거쳐 산둥으로 가는 해운 노선에 대해서는 별달리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당조의 의도적인 ‘무시’를 전제하여 이정기 가문은 50여 년 동안 전술한 노선을 운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산동 경내의 등주, 밀주, 내주 등지뿐만 아니라 당조의 수로 중심지인 초주에도 신라방이 형성되었다. 재당 신라인은 수로를 이

89) 박근칠, 「唐後期 江淮運河와 新羅人の 活動」, p.61.

용하여 운송업과 무역 활동을 전개하였고 경유지에는 크고 작은 신라촌이 형성되고, 촌과 촌 사이뿐만이 아니라 주와 주 사이의 왕래도 매우 밀접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평소 소식을 공유하고 서로 도우며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동쪽의 신라, 남쪽의 초주, 양주까지 이어지는 수로 교통망을 형성하였다. 장보고의 무역 활동도 재당 신라인이 만든 수로 교통망을 통해 적산법화원을 ‘기지’로 하여 초주, 양주에서 신라, 일본까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819년에 당조가 이정기 가문의 세력을 소멸시키자, 산동지역에는 할거 세력이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820년에 대운하의 중요한 교통 중심지였던 변주에서 군란이 일어났다.⁹⁰⁾ 이 군란으로 인해 조운에 악영향이 미치자, 장안으로 동남번진의 세금이 곧바로 운송되지 않았다. 또한 얼마 후 서주군(徐州軍)도 왕지홍의 인솔 하에 절도사 최군(崔群)을 몰아내고 운하를 통해 장안으로 운반되는 물자를 약탈하였다.⁹¹⁾ 이것은 동남지역의 세금에 크게 의존하던 당 중앙에 견딜 수 없는 결과였다. 따라서 반란을 진압하고 대운하의 조운을 회복하여 당 중앙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당시 당조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당조가 이씨 가문을 평정한 후 치청진은 정치·군사적으로 당조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에 상공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번진 내에서 사용하였다.⁹²⁾ 따라서 치청진은 경제적으로 당 중앙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중앙재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운하는 번수가 반란을 일으켜 운하 조운을 차단하였다. 당조는 물론 치청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여력이 없어서 이정기 가문이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치청진에 대한 ‘고식’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씨 가문이 산동을 통치하면서 크게 발전시킨 해외무역에 권력 공백이 생겼고, 이미 진행되고 있던 해외무역에도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때 장보고는 무녕군(武寧軍)에서 군중 소장을 지낸 경력과 초주, 해주, 내주, 밀주, 등주 등 연해 일대(양주에서 산동반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에 분포한 신라인 무리들, 그리고 여러 규모로 형성되어있던 신라촌이나 신라방의 세력 등을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항해 기술의 한계와 신라가 당·일 양국 간에 위치했던 지리적 장점 등을 이용하여 당·나·일 3국 간 해외

90) 『資治通鑑』 卷242, 長慶二年, p.7818.

91) 『舊唐書』 卷156, 王智興傳, p.4139.

92) 鄭東巖, 「唐代淄青鎮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p.22.

무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상 국제무역을 시작했을까? 장보고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번천문집(樊川文集)』에 따르면, 장보고는 젊은 나이에 입당하여 30대에 무녕군 소장이 되었다.⁹³⁾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장보고는 828년에 신라로 돌아가 청해진(淸海鎭)을 세웠다.⁹⁴⁾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에 따르면 그는 841년에 사망했다.⁹⁵⁾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는 대략 790년쯤에 태어나 910년대에 입당하여 서주 절도사 무녕군에 투신하였다. 이후 무녕군이 이사도를 평정하는 과정에서 전공(戰功)을 세워 소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당조가 이사도의 반란을 평정한 후에 당조와 할거빈진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전쟁도 결말을 고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조는 군비를 줄이고 빈진 병력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감군정책을 시행하였다.⁹⁶⁾ 이런 상황에서 장보고는 무녕군을 떠나 생계를 꾸리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따라서 장보고는 20대에 무녕군을 떠나 828년에 신라에 돌아가 청해진을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이에 약 8년 공백기가 있었는데 『입당구법순례행기』에 환속승(還俗僧) 이신혜(李信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신혜는 일본 대재부(大宰府)에서 8년 동안 살았고 일본에 있는 동안 장보고와 알게 되어 824년에 장보고와 함께 당에 돌아와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에서 살았다고 한다.⁹⁷⁾ 따라서 824년 전에 장보고가 이미 당과 일본 간에 여러 차례 왕래하며 당과 일본 간의 무역 활동도 전개했을 가능성을 보인다. 또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가 청해진을 세우기 전부터 이미 등주에 적산법화원을 세웠다. 즉 장보고는 제대하고 얼마 안 되어 당·일 간의 무역 활동을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무역 활동 과정에서 당과 일본 사이에 있는 신라의 지리적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828년에 신라로 돌아가 해적 세력의 퇴치를 명분으로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그는 귀국하여 청해진을 설치하기 전부터 당·일간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력을 축적하였고 신라왕이 제공한 군사력과 청해진의 우수한 지리적 교통 여건을 이용하여

93) 杜牧, 『樊川文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卷6, 張寶皋·鄭年傳, p.101.

94) 『삼국사기』(서울: 일신서적공사, 1986), 신라본기 10, 흥덕왕 3년 4월, p.187.

95) 『續日本後紀』(東京: 吉川弘文館, 2004) 卷9, 承和九年春正月乙巳條, pp.127~128.

96) 『舊唐書』 卷16, 穆宗記, 長慶元年二月乙酉, p.486.

97)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會昌五年九月廿二日, pp.195~196.

당·나·일 간의 무역 활동을 확대·합법화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어떻게 산동 등주 경내의 신라인을 이용해 자신의 해상 무역을 발전시켰을까? 앞서 서술했듯이 재당 신라인들은 산동반도에서 초주(양주)까지의 수로를 따라 연해에 크고 작은 신라촌과 신라방에 모여들었고, 이처럼 많은 신라방과 신라촌으로 인해 당조는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를 설치하여 신라인을 관리하였다. 엔닌이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적산법화원과 등주 문등현의 구당신라소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했던 장영(張詠), 임대사(林大使), 왕훈(王訓) 등의 사례를 통하여 산동의 신라인 사회가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엔닌이 839년에 등주로 들어가 847년 등주를 떠날 때까지 신라인 장영이 계속 문등현 ‘구당신라압아소’의 ‘압아(押衙)’를 담당하였다. 그의 직책은 ‘평로군절도동십장(平盧軍節度同十將) 겸 등주제군사압아(登州諸軍事押衙)’였다.⁹⁸⁾ 치청절도사는 평로절도사라고도 하며, ‘同十將’은 군내 장교급 군관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압아’는 변진 내 정부 기구의 무직 속료(屬僚)를 가리킨다.⁹⁹⁾ 따라서 장영은 등주의 ‘압아’로 평로군 절도사 휘하의 장성급 장교와 같은 대우를 받았고, 문등현의 신라인을 관리하는 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엔닌이 공험(公驗)을 가지고 장안을 출발하여 여러 주현을 거쳐 등주 문등현에 이르렀고, 신라소를 담당하던 구당 장영이 엔닌의 공험을 심사하고 주사(州司)에 보고하여 엔닌이 문등현에서 배를 타고 귀국하고자 했던 요청을 허가해 주었다는¹⁰⁰⁾ 것을 보면 장영의 직권 범위가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관할 범위는 문등현 구당 신라소가 위치 있던 청녕향(靑寧鄉)을 중심으로 문등현 내륙의 일부 지방까지 이르렀다.¹⁰¹⁾ 그리고 “촌의 구당인 왕훈의 집에 보내어 과해량(過海糧)을 사들였다”¹⁰²⁾라는 내용을 통해 왕훈은 신라촌 ‘소촌(邵村)’의 촌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839년 5월 16일에 엔닌이 망해촌(望海村)에 정박하자, 압아사(押衙使)가 와서 조공사에게 현에 보고하는 첩을 요청하였고, 청익승(請益僧)은 유주(留住)하

98)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會昌五年八月廿七日, p.194.

99) 圓仁 著, 小野勝年 校注, [白化文]李鼎霞·許德楠 修訂校注, 『入唐求法巡禮行記校注』,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2, pp.492~493.

100) 程喜霖, 『唐代過所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0, p.179; 김택민, 「在唐新羅人の 활동과 公驗(過所)」, 『대의문물교류연구』, 서울: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101) 김문경, 「신라인의 해외활동과 신라방」, 『한국사시민강좌』 28, 2001, p.17.

102)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四年五月一日, p.57.

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들 문서를 상인 손청(孫淸)에게 주어 임대사의 집에 보냈다¹⁰³⁾라는 내용을 통해 ‘대사’라는 직위는 ‘압아’, ‘도병마사(都兵馬使)’ 등 중급 무관의 존칭이고¹⁰⁴⁾ 따라서 임대사도 장영처럼 무직 관리이면서 망해촌 촌장도 겸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839년 6월 7일에 엔닌이 적산법화원에 입주하자 법화원에 대하여 신라통사 압아(新羅通事押衙) 장영 및 임대사, 왕훈이 같이 구당하였다고 했다.¹⁰⁵⁾ 따라서 법화원은 다른 사원과 달리 승려와 속자(俗子)가 함께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엔닌은 청녕향 적산원이 문서 [狀]을 올렸는데, 그 문서는 ‘일본국 승려가 배를 타고 귀국하지 않은 사유 등을 검사한 내용[狀]’¹⁰⁶⁾이라는 문서라고 하였는데 적산법화원의 원주승(院主僧)인 ‘법청(法淸)’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영, 임대사, 왕훈도 사원의 관리를 맡았다면 법청이 사찰의 대외 업무와 법화원의 승려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고, 사원 내부의 운영 등 다른 부분은 장영, 임대사, 왕훈이 맡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화원은 단순한 사원이 아니고, 속자도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부 경영사무가 번잡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려의 신분으로 경영사무에 나서서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장보고의 무역 활동 경력과 장영 등 3인의 신분을 결합했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적산법화원이 일종의 무역기지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영 등 3인은 모두 등주 신라인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었다. 따라서 무녕군 출신으로 서주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등주에서 깊은 인맥이 없었던 장보고에게 이들과 협력과 합작을 해야 할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주요 활동과 세력 범위가 등주 일대에 있지 않던 장보고에게 사원을 무역기지로 삼아 자신의 무역 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등주는 현지인들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 장보고가 치청 지역의 군사, 행정, 무역 등 각 방면의 정보와 지원을 적시에 주고받을 수 있었던 곳이었을 것이다. 장보고는 적산법화원을 매개로 장영 등과 협력하여 현지

103)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四年五月十六日, pp.58~59.

104) 圓仁 著, 小野勝年 校注, [白化文]李鼎霞·許德楠 修訂校注, 『入唐求法巡禮行記校注』, p.160.

105)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四年六月七日, p.62.

106)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四年七月廿八日, p.67.

지방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동 내의 신라인들과 지속해서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나아가 이들을 자신의 권력 범위 내에 포함해 자신을 중심으로 재당 신라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엔닌은 839년 6월 27일에 장보고의 교관선(交關船) 두 척이 적산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¹⁰⁷⁾ 다음날, 당의 천자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즉위한 신라왕을 위문하도록 하였고, 청주병마사(靑州兵馬使) 오자진(吳子陳), 최부사(崔副使), 왕판관(王判官) 등 30여 명이 법화원에 도착하였다. 밤에는 장보고도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 최병마사(崔兵馬司)를 보내 사(寺)에 와서 위문하게 했다.¹⁰⁸⁾ 이는 청해진과 적산법화원 사이에 항상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법화원이 장보고 상단의 무역 중계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당시 청주는 치청절도사의 치소였는데, 이 경우 청주병마사는 바로 치청절도병마사(淄靑節度兵馬使)로 이들 30여 명이 신라에 가기 전에 법화원에 머물렀다는 것은 적산법화원이 지방 관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장보고도 최병마사를 보내 위문한 것은 장보고와 치청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주병마사 오자진 등이 위문한 신라왕은 신무왕(神武王)이었는데 신무왕이 즉위하자 그의 즉위를 도운 장보고를 감의군사(感義軍使)에 봉하였다. 그 후 7월에 당의 사신이 신라를 방문하자 신무왕은 노비를 치청절도사에게 주었다.¹⁰⁹⁾ 신무왕이 왜 치청절도사에게만 노비를 증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신무왕과 장보고 간의 밀접한 관계에 따라 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가장 깊이 관련된 것은 장보고가 산동지역에서 전개했던 무역 활동일 것이다. 장보고는 무역의 편의를 위해 치청진 절도사와 우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무왕이 치청절도사에게 노비를 보내도록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심지어 장보고가 산동에서 전개한 무역 활동은 치청절도사와 모종의 암묵적 합의와 더불어 치청 지방정부의 묵인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왜 사원을 무역기지로 택했을까? 우선 당대에는 불교가 성행하여 많은 백성들이 불교를 신봉하였다. 신라도 마찬가지로 입당하여 구법

107)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四年六月廿七日, p.63.

108) 『入唐求法巡禮行記』 卷2, 開成四年六月廿八日條, p.63.

109) 『삼국사기』 신라본기 10, 신무왕 원년 7월, p.191.

한 신라승이 많았던 점을 보면 당시 신라에서도 불교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인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사원을 건립하는 것은 해외에 있는 신라인들에게 위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인들을 결속할 수 있고, 자신의 세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사원을 무역기지로 삼는 것은 현실적인 충돌을 막는 데 용이한 방법이었다. 장보고의 무역 활동이 치청진 지방정부의 암묵적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은 크지만, 당조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목(杜牧)은 『번천문집』에서 장보고가 무녕군 소장으로 지내다가 신라로 들어가 청해진을 세우고 신라인을 강탈하여 매매한 해적세력을 단속한 것만을 언급했을 뿐, 장보고의 해상 무역 활동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조가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 당이 실시한 외국인의 물품 구매에 대한 제한은 엔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업이 가장 번성했던 양주에서도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¹¹⁰⁾ 대규모 해외로의 운송과 무역과 관련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장보고는 입당한 후 계속 서주에서 활동하였고 서주는 초주, 사주 연수현의 신라방과 인접해 있었다. 845년에 엔닌은 등주에서 온 신라인과 함께 배를 타고 회수로 들어가 사주 연수현에 이르렀다. 그리고 초주 역어(譯語)의 편지를 동봉하여 연수현 신라방에 들어갔고, 적산 법화원에서 만났던 옛 청해진 병마사 최훈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¹¹¹⁾ 이는 산동 연해 일대의 신라인과 회수 지역의 신라인들이 자주 왕래하였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최훈이 사주 연수현 신라방에 거주했던 사실을 보면 장보고의 상단이 두 곳을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았다면 최훈도 장보고가 살해당한 후에 피난하러 사주 연수현 신라방에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주, 초주, 사주 등지가 아닌 등주 문등현 적산촌에 사원을 건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주가 신라인이 입당하는 공식 통로였고, 당이 강회 재원지와 통제거의 조운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던 점 외에도 다음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사의 난 때부터 도첩(度牒)을 매매하는 행위가 성행하여 당의 승려가 급증하여 830년에 70만 명에 이르렀다.¹¹²⁾ 이 중 도첩 판매가 가장

110) 『入唐求法巡禮行記』 卷1, 開成四年二月廿,廿一,廿二日, pp.31~32.

111) 『入唐求法巡禮行記』 卷4, 會昌五年七月八, 九日, p.191.

112) [法]謝和耐 著, 耿異 譯, 『中國5-10世紀의寺院經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심한 곳이 사주를 비롯한 강회 지역이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재상 이덕유(李德裕)가 빈번하게 중앙으로 상소하였다.¹¹³⁾ 이로써 추측해보면 당조는 사주 일대의 사원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당조가 대운하의 중요한 경유지였던 사주에 대한 관리를 등주보다 더 엄격하게 했던 것은 분명하다. 연수현에 신라방이 있었지만 당은 신라촌보다 신라방에 대하여 더 엄격한 관리를 하였다. 신라촌은 현(縣) 직할 기구인 구당 신라소의 관리를 받았고, 신라방은 주(州)나 현의 관리를 직접 받고 있었다.¹¹⁴⁾ 또한, 등주는 오랫동안 당·신라 양국 간의 공식 항구로 왕래가 빈번하고 편리하였다. 그리고 당시 등주는 해적들이 일으킨 신라 노비 매매 문제로 인하여 신라와 당의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는 이곳에 사원을 건립하여 치청 지방정부와 이 일대에 사는 신라인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는데 이용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장보고가 왜 등주에 적산법화원을 세우고 ‘무역의 중계소’로 삼아 무역 활동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당조가 치청진에 대하여 ‘고식’ 정책을 실시하면서 치청진의 지방 관리들은 이익을 구축하기 위해 장보고의 무역 활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하였고, 사원을 무역 기지로 삼은 것은 일종의 현실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정기 때부터 산동지역에서 벌어졌던 해외무역으로 산동 경내의 신라인이 급증하였고, 이는 이후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토대가 되었다. 이씨 가문이 멸망한 후 산동지역은 더 이상 할거세력화 되지 않고 중앙에 귀부했지만 여전히 당 중앙의 관심 범위 내에는 있지 않았다. 동시에 산동 지역에서 국제무역 활동의 새로운 ‘주도자’가 필요했다. 이런 배경 하에 장보고는 ‘무녕군 군중 소장’으로 활동한 경험과 현지 신라인의 도움으로 3국 간 무역 활동을 시작했다. 시기상의 적절함과 지리상의 이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화합을 유도할 수 있었던 장보고는 원래 국가가 주도하던 ‘조공’ 물물교환 방식을 민간 상인 집단이 주도하는 국제 해상 무역으로 변화시켰다.¹¹⁵⁾ 다시 말해 장보고가 ‘해상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그가 당·나·일 삼국 간의 민간 국제무역을 합법화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장보고의 해

p.60.

113) 『舊唐書』 卷174, 李德裕傳, p.4514.

114) 권덕영, 2005,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pp.76~77.

115) 陳尚勝, 「東亞貿易體系形成與封貢體制衰落—以唐後期登州港爲中心」, 『清華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12-4, 2012, p.66.

상무역 활동은 신라와 일본 양국 정부로부터 서로 다른 수준의 인정과 지지를 받았으나, 당조의 사료에는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지 않다. 치청진 지방정부와 장보고의 관계에 따르면 장보고의 무역 활동은 치청진 지방 정부나 관리의 암묵적인 지지 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당 후기에 당 조는 먼저 동남 지역의 세금 징수를 확보하고 다음에 서북 변방의 안정을 중시 하면서 할거 지역에 속했던 치청번진에 대해 일정한 ‘고식’과 ‘자유’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장보고부터 시작된 이른바 ‘합법적’인 민간 국제무역은 대운하에 대한 당의 절대적 통제와 치청에 대한 ‘고식’을 전제로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결 론

안사의 난 이후 당조 경내에서는 변진이 급증하고 경외의 이민족이 빈번히 침입하여 당조 중앙의 지배력이 약해졌다. 할거변진은 더 이상 중앙정부에게 세금을 상공하지 않았고, 당조의 모든 재원을 동남 변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였다. 이처럼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당조는 우선 동남지역을 확고히 통제하여 세원(稅源)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대운하를 통한 원활한 조운을 보장하여 이로써 중앙 정부가 정상적으로 조량을 받아 중앙 기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또한 변방 이민족의 침입과 변경 변진 내부의 안전을 도모하고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해야 했다. 이는 안사의 난을 겪었고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던 당조로서는 국정(國政)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당조는 각 지역별 변진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양해상교취기경(兩害相較取其輕)’이라고 하듯이 동북지방 하삭 할거변진의 존재는 군사적으로 서북 변경지역이 장안에게 준 위협보다 우선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는 당조의 모든 재원이 동남 변진에 의지하였다. 정치적으로 할거변진 절도사는 당 중앙의 책봉을 필요로 하였고, 중앙의 책봉을 통해 변수는 변진 내에서 자신의 통치를 명실상부하게 유지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할거변진은 당조의 통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 못했다. 엄격히 말하면 할거변진은 항상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있지 않았고, 쌍방이 서로 ‘대치’하고 서로 ‘타협’하는 국면이 되었다.

당조의 할거변진에 대한 이러한 ‘타협’적·‘고식’적 태도로 인해 치청진을 통솔한 이정기와 그의 가문은 산동 반도를 ‘무역기지’로 삼아 양주 등지의 화물을 산동으로 운송하여 신라·발해 등 국가와 무역을 했다. 반대로 신라와 발해의 물품도 산동을 통해 당 경내 각 지역으로 운송되었다. 그러나 이씨 세력이 당조에 의하여 제거된 후 치청진은 당조 중앙에 귀순했지만, 강희 지역의 변주와 서주에서 일어난 변진 반란으로 인해 당조는 여전히 강희 지역에 대한 지배를 확보하려 했다. 당조는 조량의 운송에 전적인 중심을 두었고, 산동지역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고식’적 태도나 정책을 유지했다. 이처럼 간섭하지 않는 태도와 정

책으로 인하여 치청진 지방정부가 장보고의 국제 해상 무역을 은밀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장보고는 치청진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적산법화원을 ‘기지’로 삼고, 이씨 가문 때부터 산둥 지방에서 활동한 신라인들과 결합해 자신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당·나·일 3국 간의 해상 무역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후 양주-초주-산둥(주로 등주)-청해진-일본이란 무역권이 형성되어 장보고는 한·중·일 해상 무역 활동의 ‘일인자’가 되었다.

장보고의 무역 활동에 대한 내용은 한국과 일본의 현존 사료에서 모두 확인될 수 있으나, 당조의 사료에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보고의 무역 활동은 당조가 추진한 동남 재원지의 확보와 대운하의 원활한 조운이라는 정책적 기조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당조 중앙이 치청(산둥) 지방을 특별히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보고는 사원의 엄호를 전제하고 치청진 지방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아 국제 해상 무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보고가 한·중·일 3국 사이에서 해상 무역 교류에 대하여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야 관련 역사와 인물에 대하여 보다 정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보고에 대해 중국의 “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옛말이 연상되었는데, 장보고 또한 당시의 ‘시세’가 만든 영웅 이란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사료〉

-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唐會要』, 北京: 中華書局, 1955.
『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56.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
『冊府元龜』, 北京: 中華書局, 1956.
『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83.
『太平寰宇記』, 北京: 中華書局, 2007.
『三國史記』, 서울: 일신서적공사, 1986.
『續日本後紀』, 東京: 吉川弘文館, 2004.
陸贄 著, 劉澤民 校點, 『陸宣公集』,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88.
杜牧, 『樊川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李商隱, 『樊南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圓仁 著, 顧承甫·何泉達 點校, 『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王夫之 著, 尤學工 等 譯, 『讀通鑑論』, 北京: 中華書局, 2019.
吳廷燮, 『唐方鎮年表』, 北京: 中華書局, 1980.

〈단행본〉

- 권덕영,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서울: 일조각, 2005.
김문경, 『당대 사회와 종교』,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6.
김문경 외, 『張保臯關係研究論文選集(韓國篇)』, 서울: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누노메 조후(布目潮瀕) 외 지음, 『세미나 수당오대사』(原題 『岩波講座 世界歷史』 第6卷, 東京: 岩波書店, 1970), 임대희 외 옮김, 서울: 서경, 2005.

- 박한제 외 지음, 『아틀라스 중국사』, 파주: 세계절출판사, 2015.
- 아서 라이트(Arthur Wright)·데니스 트위체트(Denis Twitchett) 엮음, 『당대사의 조명』(原題 *Perspectives on T'a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위진수당사학회 옮김, 서울: 아르케, 1999.
- E.O 라이샤워(Reischauer) 지음, 『중국 중세사회로의 여행』(原題 *Ennin's Travel in T'ang China*, New York: Ronald Press Co, 1955), 조성을 옮김, 파주: 도서출판 한울, 1991.
- 馬俊民·王世平, 『唐代馬政』, 臺北: 五南圖書出版有限公司, 1984.
- 李季平, 『唐代奴婢制度』,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6.
- 圓仁 著, 小野勝年 校注, [白化文]李鼎霞·許德楠 修訂校注, 『入唐求法巡禮行記校注』,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92.
- 岑仲勉, 『隋唐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20.
- 張國剛, 『唐代藩鎮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 程喜霖, 『唐代過所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0.
-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東京: 三省堂, 1942.
- [法]謝和耐 著, 耿昇 譯, 『中國5-10世紀的寺院經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E.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55; 1995.

〈연구논문〉

- 강봉룡, 「신라 말~고려시대 서남해지역의 한·중 해상교통로와 거점포구」, 『한국사학보』 23, 2006.
-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신라사학보』 21, 2011.
- 권덕영, 「新羅 遣唐使의 羅唐間 往復行路에 對한 考察」, 『역사학보』 149, 1996.
- 김문경, 「在唐新羅人の 集落과 그 構造」, 『당 고구려유민과 신라교민』, 서울: 일신사, 1986.
- _____, 「신라인의 해외활동과 신라방」, 『한국사시민강좌』 28, 2001.

- 김종섭, 「唐·五代 幕職官의 임용방식과 역할」, 『동양사학연구』 71, 2000.
- 김택민, 「在唐新羅人의 활동과 公驗(過所)」, 『대외문물교류연구』, 서울: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 마쓰이 슈우이치(松井秀一), 「양세법의 성립과 전개」(原題 松井秀一, 「兩稅法の成立とその展開」, 『岩波講座 世界歴史』第6卷, 東京: 岩波書店, 1970), 임대희 외 옮김,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울: 서경, 2005.
- 박근칠, 「唐 後期 地域 區分과 地方財政의 운영」, 『중국학보』 41, 2000.
- _____, 「唐後期 江淮運河와 新羅人의 活動」, 『漢城史學』 19, 2004).
- 박한설, 「羅末麗初의 西海岸交涉史研究」, 『국사관논총』 7, 1989.
- 왕경우(王賡武), 「당대 정치사에서 양자강(揚子江) 종류의 역할」(原題 Wang Gungwu, *The Middle Yangtse in T'ang Politics, Perspectives on T'a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3), 위진수당사학회 옮김, 『당대사의 조명』, 서울: 아르케, 1999.
- 이기동, 「9~10세기에 있어서 황해를 무대(舞臺)로 한 한(韓)·중(中)·일(日) 삼국의 해상활동」, 『진단학보』 71, 1991.
- 정병준, 「이정기(李正己) 일가의 교역활동과 장보고(張保臯)」, 『동국사학』, 40, 2004.
- _____,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동양사학연구』 137, 2016.
- 조범환, 「9세기 赤山法華院의 佛教儀禮」, 『한국고대사탐구』 4, 2010.
- 최재영,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社會-唐朝의 외래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35, 2004.
- 毛漢光, 「魏博二百年史論」, 『中國中古政治史論』,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2.
- 樊文禮, 「唐代“登州海行入高麗道”的變遷與赤山法華院的形成」, 『中國歷史地理論從』 2, 2005.
- 傅玫, 「試論唐代藩鎮割據形成的原因」, 『歷史教學』 2, 1965.
- 楊志玖, 「試論唐代藩鎮割據的社會基礎」, 『曆史教學』 6, 1980.
- 楊志玖·張國剛, 「藩鎮割據與唐代的封建大地主所有制-再論唐代藩鎮割據的社

- 會基礎」，『學術月刊』 6, 1982.
- 寧可，「唐代宗初年的江南農民起義」，『歷史研究』 3, 1961.
- 王鳳翔，「唐代西北藩鎮與地域社會」，『唐都學刊』 5, 2010.
- 王援朝，「唐代藩鎮分類芻議」，『唐史論叢』 5, 西安：三秦出版社，1990.
- 袁英光，「試論唐代藩鎮割據的幾個問題」，『唐史研究會論文集』，西安：陝西人民出版社，1980.
- 鄭東巖，「唐代淄青鎮研究」，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10.
- 朱德軍，「略論唐代中原藩鎮的演變及其表現」，『洛陽師範學院學報』，2010-4, 2010.
- ，「唐代中原藩鎮軍額與軍費問題初探」，『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 2011.
- 陳尚勝，「東亞貿易體系形成與封貢體制衰落—以唐後期登州港為中心」，『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2-4, 2012.
- 車垠和，「8-9世紀唐羅日地方涉外權力的增強與東亞貿易圈的形成」，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2009.
- 大澤正昭，「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德宗・憲宗期を中心とて—」，『東洋史研究』，32-2, 1973.

中文提要

唐后期山东地区形势张保皋登场背景

胡英鑫(Hu, Ying-xin)

Major in History Of East Asia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提及张保皋，最为备受瞩目的便是由他主导的唐罗日三国间的海上贸易活动。也是从张保皋开始，三国间的贸易形势从原来由国家主导的朝贡（册封）的贸易转变为‘合法的’民间贸易。那么张保皋为什么可以‘合法的’进行三国间的海上贸易呢？贸易活动开始的契机又是什么呢？想要搞明白这个问题，首先我们不得不先把视线聚焦到张保皋的主要活动地—当时的唐朝。

当时的唐朝，正值安史之乱后，中央元气大伤对地方的统治力变弱，而反观地方藩镇节度使，牢牢掌握着藩镇内的行政、经济、军事权，渐渐开始不再听从中央的指挥，甚至有些藩镇开始联合起来与唐中央呈割据状态，也就是所谓的‘割据藩镇’。其中最为典型的代表便是位于山东地区的淄青藩镇，也是当时势力最为强大的地方藩镇。除了‘割据藩镇’也有听从唐朝中央指挥，不与中央对抗的藩镇。按照对唐朝中央统治的不同作用和功能，可以将这些藩镇划分为三种类型，首

先是当时唐朝财政的主要征收地—东南地区的各藩镇，与之紧密相连的便是确保东南藩镇的税金可以快速、安全的到达长安，遏制叛乱的中原各藩镇。在唐朝中央确保了对东南藩镇的财源保证后，其次最为重视的，便是长安的政治地位，与之紧密相连的便是边疆的异民族的侵扰。所以唐朝中央在边疆（尤其是西北边疆）屯集重兵，设置藩镇保障边疆的安全，这些藩镇可以统称为边疆藩镇。反过来，边疆藩镇拥有如此大的兵力同样也对唐朝中央产生了威胁，所以边疆的形势情况也大量吸引了唐朝中央的目光。

在唐朝后期，中央的统治力不断变弱的大背景下，唐朝只能先牢牢控制住东南藩镇以确保中央财政的正常运转，最后将余力，投入到边疆藩镇，保证边疆的安全，以确保长安的政治地位。这种情况下，对于位于东北地区的割据藩镇，唐朝显得有些无计可施。只能最大限度的满足他们的要求，使他们不再反抗中央，避免不必要的战争，阻止中央统治力进一步的下滑。而正因为唐朝中央对割据藩镇的容忍和满足，当时统治山东地区的李正己家门利用山东半岛的地理位置的优势，积极开展与渤海、新罗的贸易活动，获取巨额利益，以支撑自身与唐朝中央的割据状态。

但李氏家族好景不长，于819年被唐朝消灭，之后淄青藩镇归顺中央，自然再也无法以地方政府的名义开展国际贸易。紧接着，唐朝又因财源地—江淮地区的叛乱，更是‘无暇顾及’淄青镇。这样，山东境内已经形成‘惯例’的海外贸易市场，急需一个新的‘继承者’。而在这时，恰巧因为唐穆宗的销兵政策，离开武宁军的张保皋，在淄青镇地方政府的暗地支持下，与山东境内的新罗人合作，以登州的赤山法华院为基地，积极开展以自身为中心的唐罗日三国间的贸易活动。由此，可以推论出，张保皋的贸易活动是基于唐朝对财源地—东南地区的重视，对西北边疆形势的顾忌，对山东地区忽视的背景下，才得以与淄青镇地方政府合作，开展唐罗日三国间的海上贸易。

[关键词] 张保皋，赤山法华院，藩镇体制，李正己，在唐新罗人

[keyword] Zhang Bao-gao, Chishanfahuyuan, Fanzhen-system, Li Zheng-ji,
Silla residents in T'ang region